



이스라엘 개황

2021. 11.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목 차

이스라엘 일반



개관

7



역사

13

- 1. 역사 연표
- 2. 현대사 주요사건

14
23



정치

37

- 1. 이스라엘 정치의 특징
- 2. 대통령
- 3. 입법부
- 4. 행정부
- 5. 사법부
- 6. 지방자치

38
40
42
44
49
51



군사

53

- 1. 국방조직
- 2. 이스라엘군
- 3. 군복무의 종류
- 4. 군사력 현황
- 5. 대외군사협력 현황
- 6. 군수방위산업 현황

54
56
58
59
65
67

V	경제	71
	1. 이스라엘 경제 동향	72
	2. 이스라엘 산업구조와 동향	75
VI	사회·문화	83
	1. 개요	84
	2. 종교	86
	3. 히브리어	90
	4. 교육	91
	5. 고고학	94
VII	중동 평화	95
	1. 분쟁 근원	96
	2. 이-팔간 평화 협상과정	96
	3. 여타 인접국과의 협상과정	105
VIII	대외 관계	111
	1. 아랍과의 관계	112
	2. 미국과의 관계	119
	3. 러시아와의 관계	122
	4. 유럽과의 관계	123
	5. 중남미와의 관계	125
	6. 아시아와의 관계	126
	7. 아프리카와의 관계	127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

I	외교 관계	131
II	주요 인사교류 현황	135
	1. 이스라엘 방문	136
	2. 방한	143
	3. 문화교류 현황	149
III	통상·투자현황 및 구조	151
	1. 교역현황	152
	2. 투자현황	154
	3. 한-이스라엘 FTA 체결	154
	4. 이스라엘 진출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	156
IV	조약 체결 현황	157
V	영사·재외국민·동포 관계	159
	1. 동포사회 현황	160
	2. 영사관련 업무	162
VI	북한과의 관계	165
	1. 북한과의 관계	166
	2. 주재국 정보기관 관련 참고사항	167

이스라엘 일반

- I. 개관
- II. 역사
- III. 정치
- IV. 군사
- V. 경제
- VI. 사회·문화
- VII. 중동 평화
- VIII. 대외 관계

I

개 관

국가

- 국 명 : 이스라엘(The State of Israel)



영토

- 면 적 : 20,770km²(한반도의 약 1/10)
 - *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가자 및 서안지구 제외
- 지 형 : 평원, 산악, 사막, 해안
 - 좁고 긴 형태(남북 470km, 동서 135km)
- 기 후 : 지중해성 기후
 - 우기 : 11월~4월
 - 연강우량 : 500~750mm



예루살렘 등 중부 기준

- 수 도 : 예루살렘(해발 750m)
 - 예루살렘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해 논란이 있고, 대부분의 외국공관은 텔아비브 및 그 인근도시에 소재
 - 2021.9월 기준 예루살렘 대사관 설치 국가는 미국, 과테말라, 코소보, 온두라스, 헝가리(분관), 체코(분관), 슬로바키아(분관) 총 7개국

국민

- 인 구 : 939.1만 명(2021.9, 이스라엘 통계청)
 - 유대인 694.3만명, 아랍인 198.2만명
- 인구 증가율 : 전년 대비 1.6%(2021.9, 이스라엘 통계청)
- 해외거주 유대인(Diaspora) : 약 830만명(미국 600만, 프랑스 44.6만, 캐나다 39.3만, 영국 29.2만, 아랍권 국가 2.7만 등)
- 언 어 : 히브리어(공용어), 아랍어(특수지위 언어), 영어
 - * 2018.7월 발효된 유대민족국가기본법은 히브리어가 국어, 아랍어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 언어라고 규정
- 종 교 : 유대교 670만명 (74.2%), 이슬람교 161만명 (17.8%),기독교 18만명 (2.0%), 드루즈교 14만명 (1.6%) (2019.5.6-이스라엘 통계청)
- 식자율 : 97.8%

정부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헌 법 : 단일 성문헌법은 없고, 분야별 기본 법이 사실상 헌법기능 수행
 - * 기본법은 대통령, 의회, 행정부, 사법부, 이스라엘군, 감사원,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자유, 시민권/이민권, 예루살렘 지위, 국경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정부기관
 - 대통령 : 이츠하크 헤르초그(Issac Herzog, 2021.7.7 취임)
 - 총리 : 나프탈리 베넷(Naftali Bennett, 2021.6.13 취임, 2년 후 야이르 라피드 교체총리 겸 외교장관과 총리직 교대를 조건으로 연립 정부 구성)
- 의회 : 크네셋(Knesset, 단원제, 총의석 120석, 임기 4년)
 - 의장 : 미키 레비 (Mickey Levy, 2021.6월 취임)
- 독립 : 1948.5.14(영국)
- 독립기념일 : 유대력 이야르(Iyar)月 5일
(유대력에 따라 매년 변동하나 주로 4~5월임.)
- 군사력 : 현역 약 18만명, 예비군 약 45만명

경제

- 화폐단위 : 신이스라엘 셰켈
(NIS, New Israeli Shekel)
 - 환율: USD 1 = NIS 3.2(2021.9월)
- 명목 GDP : 4,026억불(2020, IMF)
 - 1인당 GDP : 43,614불(2020, IMF)
- GDP 성장률 : -2.6%(2020, IMF)



- 상품 교역(2020, 이스라엘 통계청)
 - 수출 : 약 500억불
 - 수입 : 약 694억불
- 실업률 : 4.3%(2020, 이스라엘 중앙은행)

공휴일

- 매주 안식일(Shabbat, 금요일 일몰~토요일 일몰)에는 대부분의 유대인 상점 및 공공기관이 문을 닫고, 대중교통도 일부 운행 정지
- 주요 공휴일은 아래와 같으며, 유대력에 따라 매년 날짜 변동
 - 유월절(Passover, 3월 또는 4월), 독립기념일(4월 또는 5월), 오순절(Shavuot, 5월 또는 6월), 유대신년(Rosh HaShana, 9월 또는 10월), 속죄일(Yom Kippur, 9월 또는 10월), 초막절(Sukkot, 9월 또는 10월)

II

역사

1. 역사 연표
2. 현대사 주요사건

1. 역사 연표

기원전 17세기 - 6세기 성서 시대

- 17세기 족장(아브라함, 이삭, 야곱)시대
- 13세기 출애굽
- 13-12세기 히브리 민족의 가나안 정착
- 1020 군주제 성립 : 초대 왕 사울
- 1000 다윗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지정
- 960 솔로몬왕이 예루살렘에 성전 건설
- 930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
- 722-720 앗시리아에 의해 이스라엘 왕국 멸망
- 586 유다 왕국, 바빌로니아에게 정복
예루살렘과 첫 번째 성전이 파괴
유대인,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감(바빌론 유수)

기원전 536-142 페르시아와 그리스 시대

- 538-515 바빌론으로부터 제1차 귀환, 성전 재건
- 332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함, 그리스의 지배
- 167-164 그리스 통치에 대항한 마카비 반란(성공)
- 164-63 하스모니아 왕조(유대인 독립국가 시기)
- 63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점령

기원전 63 - 기원후 313 로마제국의 지배

- 기원전 63-기원전 4 로마의 임명을 받은 헤롯왕 통치
- 기원전 4-기원후 30 나사렛 예수 활동
- 기원후
- 66 유대인 로마에 항거
- 70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 파괴
- 73 맞사다에서 유대인 최후의 항전
- 132-135 로마에 대항하는 바르 코크바 반란(실패)
- 210 미쉬나(구전법 모음집) 완성

313-636 비잔틴 지배

- 390 예루살렘 탈무드(미쉬나의 주해서) 완성
- 614 페르시아의 침입

636-1516 중세시대

- 636-1099 아랍지배
- 691 예루살렘 성전 터에 회교도가 바위사원 (The Dome of the Rock) 건설
- 1099-1291 십자군의 통치 : 라틴계 예루살렘 왕국
- 1291-1516 맘루크 지배

1517-1917 오스만 제국 지배

- 1564 유대법전 “술한 아룩흐” 편찬
- 1860 예루살렘 교외에 최초의 거주지 미슈케노트 사나님 건설

- 1882-1903 러시아에서 제1차 대규모 이민(알리야)
- 1897 테오도르 헤르츨, 스위스의 바젤에서 제1회 시온주의자 회의 개최(시온주의협회의 초석)
- 1904-1914 제2차 대규모 이민(주로 러시아와 폴란드 출신)
- 1909 최초의 키부츠인 드가니아와 최초의 근대적 도시 텔아비브 건설
- 1917 영국, 오스만 제국의 팔레스타인 지배 종식
영국, 벨푸어 선언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민족적 조국 건설을 보장'

1918-1948 영국의 통치

- 1919-1923 제3차 대규모 이민(주로 러시아 출신)
- 1920 히스타드루트(유대인 공동체기관)와 하가나(자위대) 창설, 국가 평의회 구성
- 1921 모샤브 나할랄 창설
- 1922 대영제국, 국제연맹의 결의에 따라 팔레스타인에 대한 위임 통치권을 부여받고 유대인 이민의 팔레스타인 정착을 촉진 하는 임무 수임. 히스타드루트가 유대인 이민정책 문제를 실질적으로 관리
- 1924 이스라엘 공업협회 창설
- 1924-1932 제4차 대규모 이민(주로 폴란드 출신)
- 1925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설립
- 1929 헤브론 유대인들, 아랍군에 의해 학살
- 1931 유대인 지하기구인 에첼 창설
- 1933-1939 제5차 대규모 이민(주로 독일 출신)

- 1936-1939 아랍군의 반유대 폭동 개시
- 1939 영국 백서, 유대인 이민 제한
- 1939-1945 제2차 세계대전 : 유럽에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 등)
- 1941 레히 지하운동 조직, 에첼에서 분리
- 1944 영국군 소속하에 유대인 여단 조직
- 1947 국제연합, 팔레스타인에 아랍과 유대인의 별도 국가건설을 결정(아랍측은 반대)

1948-1967 이스라엘 건국, 독립 전쟁, 시나이 전쟁

- 1948 이스라엘 건국 선포(5월 14일)
영국의 위임통치 종료(5월 14일)
아랍 5개국, 이스라엘 침공(5월 15일)
독립전쟁(1948년 5월 - 1949년 7월)
이스라엘군(Israel Defense Forces, IDF) 창설
- 1949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라크는 제외)
간의 휴전협정 조인
초대 크네세트(의회) 선출, 벤구리온 초대 총리 취임
이스라엘, 국제연합의 5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1948-1952 유럽 및 아랍 각국에서 대규모 이민
- 1956 시나이 전쟁(제2차 중동전쟁)
- 1962 아돌프 아이히만 처형
- 1964 국립수로(水路) 완공, 갈릴리 호수에서 남부 불모지로 용수 공급

1967-1977 6일 전쟁 및 욱키푸르 전쟁

- 1967 6일 전쟁(제3차 중동전쟁) : 예루살렘, 골란고원, 시나이 반도, 가자 및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영토 편입
- 1968-1970 이집트와 소모적 무력충돌
- 1969 노동당 소속 골다 메이어 4대 총리 취임
- 1972 뮌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 대상 테러사건 발생 및 선수단 전원 사망 (배후: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검은 9월단)
- 1973 욱키푸르(대속죄일) 전쟁(제4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최악의 전쟁
- 1974 시나이 잠정 협정 (이스라엘, 수에즈 운하에서 철수 및 시나이 반도에서 단계적으로 철수 논의 시작)
- 1975 이스라엘, 유럽공동시장(E.C.M)에 회원국으로 가입

1977-1987 리쿠드당의 부상, 제1차 레바논 전쟁

- 1977 중도우파 성향의 리쿠드당 총선 승리, 노동당 집권 종료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예루살렘 방문
- 1978 캠프 데이비드 협정 조인
- 1979 이스라엘과 이집트, 평화조약 조인
- 1981 미국과 전략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
이스라엘 공군기, 이라크의 원자로 폭파
- 1982 이스라엘, 시나이로부터 철수 완료
이스라엘, 레바논에 기지를 둔 PLO의 공격을 종식하기 위해 '갈릴리를 위한 평화작전'(제1차 레바논 전쟁) 착수
- 1984 총선 후 거국연립내각 구성(리쿠드-노동당)
모세 작전 수행, 에티오피아에서 유대인 이민 이송

- 1985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자유무역협정 조인

1987-1991 제1차 인티파타

- 1987 팔레스타인의 민중봉기(제1차 인티파타) 시작 (1987-1993)
- 1988 우주 통신 위성 오페크 1호 발사
- 1989 이스라엘 샤미르 총리, 4개조 평화안 제안
구소련 유대인의 대이민 시작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설립자 아메드 야신 체포
팔레스타인 첫 자살폭탄 버스 테러 (배후: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
- 1991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걸프전 기간 동안 지대지 미사일로 이스라엘 공격
미국과 소련의 후원으로 마드리드에서 중동평화회의 개최

1992-1996 노동당의 부활

- 1992 중국 및 인도와 외교관계 수립
노동당의 라빈 대표가 이끄는 25대 정부 출범
- 1993 미국과 러시아 입회하에 이스라엘과 PLO가 잠정 자치 협정에 서명
이스라엘과 교황청, 기본 협정에 서명
- 1994 가자지구와 예리코(여리고)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 교황청과 수교, 모로코와 튀니지에 대표사무실 설치
이츠하크 라빈, 시몬 페레스, 야세르 아라파트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
이스라엘, 요르단과 평화 조약 조인
- 1995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팔레스타인 자치 확대 (베들레헴, 제닌, 나블루스, 라말라 등 팔레스타인 귀속)

평화집회에서 이츠하크 라빈 총리 피격 사망
시몬 페레스 총리직 승계, 26대 정부 출범
팔레스타인 자살폭탄 테러 연속 발생 (배후: PIJ)

- 1996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지역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분노의 포도”(Grapes of Wrath) 작전 전개
오만 및 카타르와 무역대표 사무소 상호 설치
총선 결과, 리쿠드당 승리 및 네탄야후 총리 27대 정부 출범

1996-2001 리쿠드/노동당 경합시기, 제2차 인티파다

- 1997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헤브론 협정 서명
- 1998 와이리버 협정 서명
- 1999 총선 결과, 노동당 집권 에후드 바라크 총리 취임
샤름-엘 쉐이크 평화협정 조인
- 200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스라엘 방문
남부 레바논 내 군사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이스라엘, 유엔 지역별 그룹에서 “서유럽 및 여타 그룹(WEOG)” 분류
이스라엘-시리아 평화 회담 및 협상 결렬
제2차 인티파다 발생
바라크 총리 사임
주오만 이스라엘 무역대표사무소 폐쇄

2001-2008 샤론 총리 및 카디마당 집권, 제2차 레바논 전쟁

- 2001 아리엘 샤론(리쿠드) 총리 취임, 연립내각 구성
샤름-엘 쉐이크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행(미첼보고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안보실행작업안(테넷 휴전안) 제시

- 레카밤 즈비 이스라엘 관광장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에 의해 피습
- 2002 팔레스타인 대량 무차별 테러에 이스라엘 방호벽(Defensive Shield) 작전 개시
 - 2003 제16대 총선, 샤론 총리 연임
중동평화를 위한 Quartet(미국, 러시아, EU, UN)에 의한 중동평화 로드맵 마련
 - 2004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수반 사망(일부에서 독극물 암살설 제기)
 - 2005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 선출
샤름-엘셰이크 중동평화정상회담(이스라엘, 이집트, 팔레스타인, 요르단)으로 이·팔 평화협상 재개
팔레스타인 제정파간 대이스라엘 무장투쟁 휴전 합의
가자지구 및 서안 북부로부터 일방 철수(disengagement policy)
샤론 총리 등 중도 성향의 카디마(Kadima)당 창당
 - 2006 제17대 총선에서 카디마가 제1당이 되어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 취임
하마스(Hamas)가 팔 총선에서 승리, 정부수립(국제사회의 대팔 제재 시작)
헤즈볼라의 도발에 따른 제2차 레바논 전쟁 및 휴전(유엔 결의안 1701 채택)
 - 2008 이스라엘-가자간 분쟁(Cast Lead 작전)
- 2009-2020 네탄야후 총리의 장기 집권**
- 2009 제18대 총선실시, 네탄야후 총리 취임
 - 2012 이스라엘-가자간 분쟁(Pillar of Defense 작전)

- 2013 제19대 총선 실시, 리쿠드-베이테누 연합, 예쉬아티드, 유대인의집, 하트누아당이 연정 구성
이-팔 협상 재개 및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 2014 파타-하마스간 통합정부 구성
이스라엘-가자간 분쟁(Protective Edge 작전)
- 2015 제20대 총선 실시, 네탄야후 총리 연임
리쿠드, 쿨라누, 유대인의집, 샤프스, UTJ로 연정구성, 34대 정부 출범
- 2017 트럼프 미 대통령,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 2018 미국 대사관, 과테말라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 2019 제21대 총선 실시, 사상 처음으로 연정 구성 실패
제22대 총선 실시(9.17), 연정 구성 실패
트럼프 미 대통령,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 2020 제23대 총선 실시(3.2), 네탄야후 총리 연임리쿠드, 청백당, 샤프스, UTJ, 노동, 데렉 에레츠, 유대인의집, 게셔 등이 연정 구성, 35대 정부 출범(네탄야후-간츠 총리/교체총리직 교대 수임 합의에 기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평화구상 제안
이스라엘,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수교 (아브라함 협정, 이-바 관계정상화)에 이어 수단, 모로코와 관계 정상화에 합의
- 2021 제24대 총선 실시(3.24), 네탄야후 총리 실각
베넷-라피드 총리직 교대 수임을 조건으로 36대 정부 출범 (6.13) /反네탄야후 진영의 연정 구성(야미나, 예쉬아티드, 청백, 베이테누, 노동, 메레츠, 새희망, UAL)
이스라엘-가자지구 무장 세력 간 교전(Guardians of the Wall)

미국, 과테말라에 이어 코소보, 온두라스가 예루살렘에 대사관 개관

체코와 헝가리, 대사관 분관을 예루살렘에 개관

주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대사관 개관 (텔아비브)

주모로코이스라엘 대사관 개관 (라바트)

2. 현대사 주요사건

가. 이스라엘 건국과 독립전쟁

-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이 선포되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아랍 국가들은 곧 이스라엘을 침공함. 이스라엘군은 독립전쟁 중 조직되어 매우 빈약했으나 15개월 동안 지속된 전쟁에서 승리함. 독립전쟁으로 당시 이스라엘 인구의 1%에 해당하는 6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1949년 초 수개월간 유엔의 후원으로 이라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종전 상황을 반영한 휴전 협정을 체결함. 이에 따라 해안평야 지대, 갈릴리 및 네게브 지역이 이스라엘의 관할 하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웨스트뱅크)은 요르단의 관할 하에, 가자 지구는 이집트의 관할 하에 들어감. 예루살렘은 양분되어 요르단이 구시가지지를 포함한 동부를, 이스라엘이 서부를 관할하게 됨.

나. 정부 수립

- 전쟁 후 유권자의 85%가 참가한 총선 (1949년 1월 25일)으로 초대 의회가 탄생함. 이스라엘 독립의 주역인 유대인협회장 다비드 벤구리온이 초대 총리로,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장 하임 와이즈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의회에서 선출됨. 1949년 5월 11일 유엔의 5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독립 후 4개월 동안 홀로코스트 생존자 5만 여명이 이스라엘로 이주함. 1951년 말까지 아랍 각지에서 피난 온 30만을 포함하여 모두 68만7천여 명이 이스라엘로 이주함.



이스라엘 정부 수립 선언

- 독립전쟁으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만큼 이스라엘 국내에서의 내핍은 물론, 외국으로부터의 재정적 원조가 불가피하였음. 미국의 원조와 미국 은행들의 차관, 해외거주 유대인들의 기부금, 전후 독일의 배상금 등이 모두 주택 건설, 농업 기계화, 상선 제작, 국영항공사 설립, 광물 개발, 도로 및 통신망 구축에 사용됨.
- 건국 10년 만에 산업 생산과 고용이 2배로 늘고 산업 수출은 4배로 증가함. 농업의 발전으로 곡물과 육류를 제외한 기초 농산물을 자급하게 됨. 황무지였던 약 5만 에이커(2만 헥타르)가 조림되었으며, 800km의 해안 고속도로 변에 나무가 심어짐. 건국 이전부터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 개발된 교육제도는 아랍계도 포괄하게 되었고, 5-14세의 모든 아동에게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됨. 세계 각지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대대로 거주해오던 국가의 문화와 함께 그들 공동체의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옴에 따라 중동, 북아프리카, 서유럽의 여러 요소들과 혼합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게 됨. 이스라엘 건국 10주년 무렵에는 인구는 2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함.

다. 1956년 시나이 전쟁 (제2차 중동 전쟁)

- 1949년의 휴전 협정은 영구적인 평화에 이르는 길을 닦지 못했으며, 협정 위반 사례가 빈발함. 1951년 9월 1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반하여 이스라엘의 선박과 이스라엘행 선박의 수에즈 운하 통과가 금지되었으며, 티란 해협의 봉쇄가 강화됨. 이집트 나세르는



모세 다안 참모 총장, 1956.11.6.

- 1952년 쿠데타를 일으키고 교통의 요지인 수에즈 운하를 일방적으로 국유화함. 1956년 10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3국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고, 이에 수에즈 운하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의 공군은 수에즈를 폭격하였으며, 이스라엘도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공격함.
- 이스라엘군은 8일간의 전투로 시나이 반도 전역과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수에즈 운하의 동쪽 10마일(16km)까지 진격함. 이집트의 에일랏 만 자유항행 보장과 유엔의 이집트-이스라엘 국경선에 대한 유엔 긴급 파견군(UNEF) 배치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은 점령지로부터 점차 철수함. 분쟁 결과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만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고 아시아와 동아프리카 국가들과 교역할 수 있도록 티란 해협이 개방됨.

라. 1958년-1968년

- 이 기간 동안 수출은 2배 증가하고 GNP는 매년 10%씩 증가함. 종이, 타이어, 라디오, 냉장고 등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금속, 기계, 화학, 전자 분야도 급성장을 이룸. 농업부문은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수출용 청과물과 가공 산업을 위하여 매우 다양한 곡물 재배에 착수함. 급증하는 교역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하이파 항구 외에 지중해 해안 아쉬도드에

수심이 깊은 항구를 건설함. 미국, 영국,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음에 따라 외교 관계가 꾸준히 확대됨. 또한, 수백 명의 의사, 엔지니어, 교사, 농학자, 관개 전문가, 청소년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들로 이전하여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 국내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 독일 과도 대사를 교환하게 됨.

- 아이히만(Eichmann) 재판 : 1960년 5월 23일,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유대인 말살 계획의 주창자중 한 사람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 1950년 제정된 나치 및 나치협력자 처벌법에 따라 재판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이송됨. 1961년 4월 이스라엘 법원은 아이히만을 인도에 반한 죄로 유죄 판결하고 사형을 선고함.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후 1962년 5월 30일 아이히만은 교수형에 처해짐. 동 사건은 이스라엘 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유일한 사례로 기록됨.

마. 1967년 6일 전쟁

- 1967년 5월 이집트는 시나이 사막으로 군대를 이동시키고, 1957년 이래 그 지역에 주둔한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티란 해협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고, 요르단과 군사 동맹을 체결함. 1956년 시나이 분쟁 뒤 합의된 협정을 회복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발동하여 1967년 6월 5일 남부 이집트에 선제공격을 개시함. 이어 동부의 요르단에 대하여 반격을 가하고 북부 골란고원에 진을 치고 있던 시리아 군을 몰아냄. 6일 전쟁 후 이스라엘이 가자 및 서안지구,



에쉬콜 총리와 베긴 장관, 1967.6.14.

시나이 반도, 골란고원을 점령함. 이로써 티란 해협 통과가 재확보되었고, 1949년 이래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에 양분되었던 예루살렘이 재통합됨. 1967년 전쟁은 이스라엘 건국 후 분수령을 이루는 역사적 전쟁으로 기록됨. 1967년 전쟁 시 이스라엘이 확보한 동예루살렘, 서안, 골란고원 등은 현재 까지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과 아랍측은 1967년 이전의 국경선으로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음.

바.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

-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과 팔레스타인의 테러는 이스라엘의 독립 이전부터 수십 년 간 계속된 것으로, 1964년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가 설립되면서 테러가 전면적으로 확산됨. 대표적인 테러사건 중 하나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선수단 살해 사건임.

- 1972년 9월 5일 서독 뮌헨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올림픽 팀을 11명의 검은 9월단 대원들이 인질로 잡고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테러 진압 실패로 대표팀 전원이 살해됨.



팔레스타인 검은 9월단 테러리스트

- 검은 9월단은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234명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는 이를 거절

사. 1973년 욱키푸르 전쟁

- 1970년 이스라엘-이집트가 휴전에 동의한 후 3년간 지속된 평화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기습 공격을 가한 1973년 욱키푸르(대속죄일)에 깨짐. 1973년 10월 6일 이집트 군대가 수에즈 운하를 건너고, 시리아 군대가



모셰 다안 국방장관과 아리엘 샤론 사령관

골란고원을 돌파함. 3주 동안에 이스라엘군은 전세를 역전시켜 수에즈 운하를 넘어 이집트에 진격하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20마일 부근까지 육박함. 2년간의 교섭 끝에 이스라엘/이집트, 이스라엘/시리아간에 철군조약이 체결되어 이스라엘은 점령지 일부로부터 철수함.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

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기습을 당해 개전 초기 고전을 겪었고 많은 사상자(약 2,500명 전사, 8,000명 부상)가 발생함. 특히 '정보의 실패' 등 국가안보의 절대적 보장에 대한 의구심 등 내부적인 자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이집트와의 평화협정의 길을 여는 요인이 되기도 함.

아. 1973년-1982년

- 욱키푸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1년 GNP에 해당하는 전비를 부담하였으나, 1974년 하반기 무렵 경제가 회복됨.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었고, 1975년 이스라엘이 유럽 공동시장의 준회원이 됨에 따라 이스라엘 상품의 새로운 잠재 시장을 얻게 됨. 관광객이 급증하여 이스라엘 건국 30주년 즈음에는 방문객 수가 연간 1백만 명을 상회함.
- 1977년 의회 선거로 30년에 걸친 노동당의 집권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주의적이고 중도적인 정당들이 제휴한 리쿠드 연합이 집권하게 됨. 신임 수상 메나헴 베긴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전임 수상들의 헌신을 강조하고 아랍 지도자들에게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함.
- 1977년 11월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방문함. 1978년 9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카터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집트/이스라엘 정상 회담이 열림. 캠프데이비드 합의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다른 인접 아랍 국가들 간의 평화를 위한 토대역할을 함. 동 합의에는 이스라엘이 1967년 이래로 통치하고 있는 서안지구(유다, 사마리아), 가자지구와 그 지역 주민의 지위에 대한 협상을 위한 상세한 제안들이 포함됨.

-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1979년 3월 26일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평화 조약에 서명함. 이를 통해 사다트 대통령과 베긴 총리는 양국 간 30년에 걸친 전쟁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그 공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함. 평화조약에 따라 이스라엘은 1982년 4월 시나이 반도에서 철군을 완료함.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 체결, 1979.3.26

- 1981년 미국과 전략적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에 조인하였고, 이스라엘 공군은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를 파괴(1981.6.7)함. 1973년 석유 위기 당시 아랍의 강력한 압력에 따라 이스라엘과의 유대관계를 단절했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공식 외교관계를 재수립함.

자. 1982년 제1차 레바논 전쟁(일명 Operation Peace for Galilee)

- 1948년 독립전쟁 이후 설정된 레바논과의 국경은 비교적 평온하였으나, PLO가 1970년 요르단에서 쫓겨나 레바논으로 거점을 옮긴 이후에 레바논 남부에 위치한 PLO로부터 총격, 로켓 공격, 테러 행위가 빈발함. 1978년 팔레스타인 무장 게릴라가 텔아비브 인근에 진출, 버스탑승 민간인 35명을 살해한 테러공격에 대응, 레바논 Litani강 이남을 일시 점령함(Operation Litani). PLO의 테러공격과 국경지역 도발에 대응하여 이스라엘군은 1982년 6월 국경을 넘어 레바논으로 진입함. 일명 '갈릴리 평화작전'으로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 자리 잡은 PLO 조직과 하부 군사 조직을 이 지역에서 제거

함.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를 안전지대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 일정 규모의 군대만을 남겨 놓은 채 1985년 초까지 레바논에서 대부분 철수함. 그 이후 2000년 6월 이스라엘군은 완전 철수함.

- 1982년 9월16~18일 베이루트를 봉쇄하던 이스라엘군이 서베이루트에 진입한 가운데, Gemayel 대통령의 암살을 보복하기 위해 Palange 기독교 민병대가 Sabra와 Shatila 팔레스타인 난민캠프에서 약 400~2,000명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함. 당시 이스라엘군이 기독교민병대의 학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비난이 대두됨.

차. 1982년-1994년

-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스라엘은 백만여 명의 새로운 이민자들을 구소련, 동유럽 및 에티오피아에서 받아들임. 상당규모의 소비자들과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들의 유입은 경제발전을 가속화함. 이 기간 중 이스라엘 정부는 평화 달성, 경제 발전 및 이민자 흡수를 위해 노력함.
- 1984년 의회 선거에서 리쿠드 당(우파/중립)과 노동당(좌파/중립)의 양대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권이 탄생함. 1988년에는 리쿠드 당이 주도하는 연립정권이 들어섰고 1992년에는 노동당과 군소 좌파 정당들의 연립정부가 탄생함.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후세인 요르단 국왕이 미국의 중재로 여러 차례 비밀협상을 거쳐, 1994년 10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 역사적 적대 관계를 청산함.
- 1987년 12월 이스라엘군 지프차에 치여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가자지구 에레즈 검문소가 습격을 당하면서 제1차 인티파다(對이스라엘 봉기)가 시작됨.

카. 1995년-2000년

- 1995년 라빈 총리가 극우파 이스라엘 청년에게 살해된 후 1996년 새로운 정부를 위한 선거가 실시됨. 총리 직선제로 벤야민 네타냐후가 총리에 당선되었고 리쿠드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함. 1999년 단일 이스라엘 정당 대표 (좌파/중립)인 에후드 바라크가 총리로 선출되어 연립내각을 구성했으나 2000년 12월 사임함.
- 2000년 9월 샤론 리쿠드 대표의 성전산 진입 시도로 인해 제2차 인티파다가 촉발되어 이스라엘측 1,000여명, 팔레스타인 3,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타. 2001년-2006년(제2차 레바논 전쟁)

- 2001년 2월 리쿠드당 대표 샤론이 총리로 선출되었고 주요 정당들을 포함하는 연립내각을 구성함. 샤론 총리는 2005년 11월 분리정책 (Disengagement Policy)에 대한 당내 반대세력에 부딪히자, 리쿠드당을 탈당하여, 중도성향의 신당 카디마(Kadima, '전진'의 의미)를 창당함. 2006년 1월 샤론 총리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2006년 3월 총선에서 에후드 올메르트가 주도하는 카디마가 제1당이 되어 2006년 5월 노동당 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함.
 - 이스라엘 샤론 정부는 2003년 12월 중동평화 로드맵이 실패할 경우에 일방적 분리정책을 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2005년 8월 가자 전역 및 서안 일부로부터 이스라엘 정착촌을 철수하는 분리정책을 시행
- 2006년 7월 남부 레바논을 장악하고 있던 헤즈볼라 세력이 이스라엘군 부대를 공격, 병사 2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스라엘이 이에 대응 헤즈볼라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레바논 전쟁이 발발함.

파. 2008년-현재

1) 네탄야후 2기 정부

- 2008년 9월 올메르트 총리는 부정부패 혐의로 사임 의사를 발표하였으며, 2009년 2월 총선을 통해 보수·우익 성향의 정당(여당인 리쿠드당 및 3개 정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좌익 성향의 노동당이 참여하는 연정(총 120석 의석중 74석 차지)이 구성되었고 네탄야후 리쿠드당 대표가 총리로 선출됨.
- 2008년 12월 Operation Cast Lead(제1차 가자분쟁)가 개시됨.
-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는 가자봉쇄를 타파하기 위해 ‘Gaza Freedom Flotilla’를 조직, 선박들을 가자해상으로 진입시키고자 수차례 시도함. 2010년 5월 터키선박 Mavi Marmara호가 가자해상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이스라엘 해군과 무력 충돌하여 터키인 9명이 사망함(그 후 1명이 추가로 사망). 이로 인해 이스라엘-터키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됨.
- 2011년 1월 바락 노동당 대표(국방장관)는 4명의 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당을 탈당하고, 신당(독립당)을 창당함에 따라 연정 의석은 74석에서 66석으로 축소되었으나 연정에 필요한 의석(최소 61석)을 유지함.
- 2012년 10월 네탄야후 총리는 2013년 정부예산에 대한 연정 구성 정당들 간 합의 도출 실패를 이유로 조기 총선 실시를 제안하여 제18대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실시가 결정됨.
- 2012년 11월 군용차가 가자지구 발 대전차 미사일에 피격당함.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하마스 및 이슬람 지하드 무장단체들을 대상으로 Pillar of Defense 공습작전(제2차 가자 분쟁)을 감행함.

2) 네탄야후 3기 정부

- 2013년 1월 22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네탄야후 총리와 리베르만 전 외교 장관의 리쿠드-베이테누 연합이 31석, 중도성향의 예쉬아티드가 19석, 노동당이 15석, 극우성향의 유대인의집이 12석, 세파르딤 계열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가 11석, 아쉬케나짐 계열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통합토라유대교(UTJ)가 7석, 리브니 전 외교장관의 하트누아가 6석, 진보 성향의 메레츠가 6석, 아랍계 정당들인 라암타알, 하다쉬, 발라드가 각각 4석, 4석, 3석, 카디마가 2석을 차지함.
- 2013년 3월 18일 리쿠드-베이테누 연합, 예쉬아티드, 유대인의집, 하트누아 등 67석으로 구성된 제33대 이스라엘 정부가 출범함.
- 2013년 7월 이-팔 평화협상이 재개되고 세 차례에 걸쳐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석방되기도 하였으나, 2014년 4월 파타가 하마스와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여 평화협상은 중단됨.
- 2014년 6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 의해 이스라엘 종교학교 학생 3명이 납치되자, 이스라엘군은 서안에서 테러요원을 색출하는 작전을 개시함. 이에 대응하여 가자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로켓을 무차별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2014년 7월 8일 Protective Edge 군사작전(제3차 가자분쟁)을 개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으로 약 50일간 2,200명(대부분 가자주민) 이상이 사망함.

3) 네탄야후 4기 정부

- 2015년 3월 조기총선 실시 후 네탄야후 총리의 리쿠드당이 30석을 획득, 노동당 연합(24석)을 누르고 제1당을 차지함.
- 리쿠드당의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네탄야후 총리는 연정구성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5년 5월 14일 리쿠드, 쿨라누, 유대인의집, 샤스, UTJ 등과

연정을 구성해, 34대 이스라엘 정부를 출범시킴. 이후 네탄야후 정부는 61석의 불안정한 연정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동당 연합의 연정 참여를 위해 집중 교섭해오다 실패하고, 2016년 5월 18일 강경우파 정당인 베이테누당을 연정에 합류시킴으로써 보수·우익 성향이 강한 네탄야후 정부를 구성함.



34대 정부 출범, 2015.5.14.

- 이-팔 평화회담 관련, 2016년 프랑스, 미국, 이집트와 아랍연맹 등의 주도로 다수의 평화회담 시도가 있었으나, 이-팔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이 없었음.
 -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선언에 이어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UNRWA 지원금 중단, 주미 PLO 대표사무소 폐쇄 등 일련의 친이스라엘 조치로 인해, 압바스 수반은 미국 주도 평화 회담 참여를 강력 반대함으로써 이-팔간 갈등 지속
- 한편, 2016년 말부터 제기된 네탄야후 총리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의 부패 혐의로 2019년 3월 검찰이 기소의견을 발표함.
 - 여러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한 네탄야후 총리는 2018년 12월 조기총선을 결정하고 2019년 4월 총선 실시

- 2019년 4월 9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리쿠드당이 35석, 전 이스라엘 방위군 총참모장 베니 간츠의 중도 성향 청백당 35석, 샤스당 8석, UTJ 8석, 아랍계 하다쉬-타알 6석, 노동당 6석, 이스라엘 베이테누 5석, 유대인의집 등을 포괄한 우파정당연합(United Right) 5석, 메레츠 4석, 쿨라누 4석, 아랍계 UAL-발라드 4석을 획득함.
- 초정통과 유대인의 군복무면제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세속주의 우파 이스라엘 베이테누당(군 복무 부과)과 종교정당(군 복무 면제)간 이견이 노정되어 베이테누당 연정 참여를 거부함. 이에 따라 네탄야후 총리는 연정 구성에 필요한 61석 이상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 연정구성에 실패하자 연정구성 기회가 야당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한 네탄야후 총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의회 해산 법안을 가결시킴으로써, 2019년 9월 17일 총선이 다시 실시되었으나 연정 구성에 실패함.

4) 네탄야후 5기 정부

- 2020년 3월 총선에서 네탄야후 총리의 리쿠드당이 35석을 획득, 중도 좌파 성향의 청백당(33석)을 누르고 제1당을 회복함.
- 2020년 4월 20일 리쿠드당 중심 우파와 청백당 중심 중도좌파 간 코로나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연정구성에 전격 합의하여 2020년 5월 17일 35대 이스라엘 정부가 출범하여 2018년 12월 연정 붕괴 후 1년 5개월 만에 정부가 출범함.
 - 그러나 코로나19 보건위기와 경제위기 대응 부실 및 연립 정부 양대 정당의 상호 불신과 마찰 심화로 사실상 연정기능이 마비
 - 의회는 2020년 12월 기한이던 2019-2020년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야당이 발의한 의회해산법안이 2020년 12월 통과됨에 따라, 2021년 3월 12일 조기 총선이 실시됨.

5) 베넷-라피드 1기 정부

- 2021년 3월 총선 실시 결과 친네타냐후 진영 52석, 반네타냐후 진영이 57석을 획득함.
 - (친네타냐후) 리쿠드당 30석, 샤스 9석, UTJ 7석, RZP 6석(반네타냐후) 예쉬아티드 17석, 청백 8석, 노동 7석, 메레츠 6석, 새희망 6석, 베이테누 7석, 조인트리스트 6석(기타) 야미나 7석, UAL 4석
-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 주도 1차 연정구성 시도가 실패하자, 라피드 장관의 예쉬아티드 주도 2차 연정시도가 성공하여, 2021년 6월 13일 제36대 이스라엘 정부가 출범함.
 - 광범위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8개 정당(예쉬아티드(중도), 야미나(극우), 청백(중도), 베이테누(우파), 노동(중도좌파), 새희망(우파), 메레츠(좌파), UAL(아랍계))이 연정에 참여
 - 야미나당의 베넷 대표와 예쉬아티드당의 라피드 대표가 총리직을 2년씩 나누어 교대 수임키로 합의

III

정 치

1. 이스라엘 정치의 특징
2. 대통령
3. 입법부
4. 행정부
5. 사법부
6. 지방자치

1. 이스라엘 정치의 특징

가. 일반적 특징

- 이스라엘은 전국을 단일선거구로 하는 정당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함. 의회 내 의석 확보를 위한 최소 득표율(13대 의회 이전 1%, 16대-19대 2%)이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이 가능하였으나, 2014년 3월 최소득표율을 3.25%로 상향 조정함. 이에 아랍계 정당 등 군소 정당의 반발을 야기한 바 있으나 제20대 선거(2015년 3월)부터 적용됨.
-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전통 및 유럽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각종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을 표출하는데 익숙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많은 정당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다당제의 모습을 갖추게 됨.
 - 이스라엘 국가 수립 이전(1920-1944)에도 유대인을 위한 유사 행정기관 구성에 평균 12-26개의 정당과 단체가 경합을 벌였으며, 1949년 최초의 의회 선거에서는 24개의 정당이 참여
 - 1984년 선거에는 양대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낮아지고(합계 73.7% → 66.8%로 하락) 군소정당이 크게 약진함. 군소정당은 특정 이익을 이끌어 내는데 정치적 협상력을 높였으나, 군소정당의 거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위협 등의 폐단도 노정
- 독립 이후 어느 정당도 의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1당은 여타 중소 규모의 종교, 중도, 진보, 민족, 아랍 정당들과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게 됨. 또한, 연정 탈퇴나 연정 파트너 교체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외부의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이·팔 평화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음. 일례로 2019년 4월 의회선거에서 노동당을 위시한 진보진영이 6석을 얻는 데 그쳤으며, 그 공백을 사회적으로 중도 성향이나 안보문제에서 보수적인 청백당(카홀 라반)이 채우게 됨.

나. 정부 구조



2. 대통령

가. 대통령의 지위

- 히브리어로 ‘나씨’라고 불리는 대통령은 옛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의 최고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우두머리 직함을 뜻함.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국가통합을 상징하고 정당을 초월하여 위엄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가짐. 대통령은 의회의원 과반수 지지를 받아 선출되며 임기는 7년 단임임.
- 대통령의 임무는 대부분 의례적이고 형식적임. 총선 후 열리는 새로운 의회의 첫 회기 개회, 선거 후 의회에 신 내각구성 절차 개시 요청, 외국 대사 신임장 접수, 의회에서 채택된 법률과 조약 서명, 해당 기관의 추천으로 판사, 이스라엘 은행장, 해외주재 이스라엘 대사의 임명,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른 사면권을 행사함.

나. 이스라엘의 역대 대통령

- 하임 와이즈만 (1949 - 1952) 시온주의자 협회장, 과학자
- 이착 벤즈비 (1952 - 1963) 정보부장, 역사학자
- 잘만 샤자르 (1963 - 1973) 정치가, 학자, 역사학자, 작가, 시인
- 이프라임 카치르 (1973 - 1978) 생화학자
- 이착 나본 (1978 - 1983) 정치가, 교육자, 작가
- 하임 헤르초그 (1983 - 1993) 변호사, 장군, 외교관, 작가

- 에제르 와이즈만 (1993 - 2000) 공군장성, 정치가, 사업가
- 모세 카차브 (2000 - 2007) 사회 지도자, 정치가
- 시몬 페레스 (2007 - 2014) 정치가
- 레우벤 리블린 (2014 - 2021) 정치가
- 이츠하크 헤르초그 (2021 - 현재) 정치가(Jewish Agency 대표 역임)

다. 이츠하크 헤르초그(Isaac Herzog) 대통령

- 출 생 : 1960년생
 - 학 력 : 텔아비브大 졸(법학 전공)
 - 경 력
 - 2013-2017 노동당 대표
 - 2009 사회복지장관, 해외유대인담당 장관
 - 2007 사회문제담당 장관, 해외유대인담당 장관
 - 2006 관광장관
 - 2005 주택건설장관
 - 가족관계 : 기혼(Michal), 자녀 3명
- ※ 부친 하임 헤르초그(Chaim Herzog)는 6대 대통령(1983-1993) 역임



3. 입법부(Knesset)

가. 명칭의 기원

- 이스라엘의 단원제 국회인 크네셋의 명칭과 120명의 의원수는 기원전 예루살렘에서 소집된 유대인 대표기구였던 크네셋 하그돌라(최고회의)에서 비롯됨. 크네셋 하그돌라는 기원전 5세기 경 에즈라와 느헤미아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소집된 유대인 대표 위원회임.

나. 구성

- 의회는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지만 임기 종료 이전이라도 스스로 혹은 총리가 해산할 수 있고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수 있음. 선거 후 새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모든 권한은 퇴임하는 의회가 보유함.
- 의원의 선출은 정당별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현 24대 의회에는 13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함.
- 의회의 임무는 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일을 감독하는 것임. 의회에는 12개의 상임위 및 여러 특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 상임위원회
 - 운영위, 경제위, 재무위, 외교국방위, 내무환경위, 헌법법률사법위, 이민통합디아스포라위, 교육문화체육위, 노동복지건강위, 감사위, 여성지위 및 양성평등위, 과학기술위
 - 특별위원회
 - 약물알코올남용위, 아동권리위, 정부정보접근성 및 투명성위, 법제위

(Motor Vehicle 법령/금융서비스법령/여성직업법령), 민원위, 예쉬바 학생 관련 통합위, 대기업 대출 및 계약 관련 국회조사위 등

- 기타위원회

· 의회 조사위, 윤리위, 해석위 등

- 본회의 회기 중 토론의 의제는 정부 또는 의원 개인이 제안한 법안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활동도 포함됨. 토론은 히브리어로 진행되지만 의원들은 아랍어를 사용할 수도 있음.

다. 입법절차

- 법률 제정을 위해 의회는 법안을 3번 독회 해야함. 해당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토론과 조정을 거친 법안은 본회의에서 제1독회에 회부되어 그 내용에 관한 간략한 토론이 진행된 후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세 토의를 거침. 위원회에서 작업을 마친 후 법안은 제2독회에 다시 상정되어 검토되고, 토론이 이어짐. 이 토론에서 법안이 다시 위원회의 검토나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면 제3독회가 즉시 열리고 최종 투표가 실시됨.
- 법안이 통과되면 의장이 이에 서명한 후 해당 법안의 실행에 책임이 있는 관계 장관, 총리,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한 후 관보로 공포함.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국가의 인장을 날인하면 효력을 발생함.

라. 의회 선거

- 국민, 직접, 비밀, 평등, 보통, 비례 선거제이며, 전국이 단일선거구로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짐. 피선거권은 21세 이상에 주어짐. 이스라엘 의회의원 선거는 정당명부식 투표 방식임.

- 기존 주요 정당은 리쿠드당과 노동당으로 양당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전자는 민족·자유주의(보수), 후자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진보)을 바탕으로 한때 양강 구도를 구축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이스라엘 의회는 점차 다당 구도로 재편됨.
- 2021년 3월 총선 결과(아래 참조) 최다득표당(리쿠드)의 대표인 네탄 야후가 정부구성권을 받았으나, 연정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차다득표당(예쉬아티드)의 라피드 대표가 정부구성권을 받아 연정 구성.

※ 2021년 3월 총선 결과

정당	리쿠드	예쉬아티드	샤스	청백	노동	UTJ	야미나	베이테누	RZP	메레츠	새희망	조인트리스트	UAL	계
의석수	30	17	9	8	7	7	7	7	6	6	6	6	4	120

4. 행정부

가. 총리

- 총선 결과에 따라 의원들이 선출된 후, 대통령은 각 정당 대표들과 협의한 후 정부구성 가능성이 높은 대표에게 정부구성권을 부여함. 동 대표가 정부구성에 성공하여 해당 정부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얻게 되면 정부가 구성되고 동 대표는 총리직을 공식 개시하게 됨.

- 1992년 총리직선제로 선거법이 개정되어, 1996년, 1999년 및 2001년에 동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개최됨. 다만 총리는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만 총리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지 못할 경우 총리가 구성된 내각이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 총리가 해임되고 선거가 다시 실시되는 등 정치적 불안이 초래되기도 하여 2001년에 선거법을 재개정, 1992년 이전 선거법으로 회귀함.

나. 내각

- 대통령에 의해 28일 기간 동안 연정 구성권을 부여받은 총리후보는 동 기간 내 정부를 구성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정부구성 기한을 14일 연장할 수 있음. 연장된 기간에도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의원에게 연장 없는 28일간의 정부구성권을 부여함.
- 이스라엘 정부는 주로 매주 일요일 주례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함. 아울러 필요에 따라 특별 각료회의도 개최함. 각료들은 각자의 임무수행에 대해 총리에게 책임을 지게 되며 총리가 특정 부처 장관직을 겸직하기도 함.
- 의회와 마찬가지로 내각도 4년 임기이며, 총리의 사임이나 서거, 의회의 불신임으로 임기가 단축될 수 있음. 총리가 의회의 불신임, 탄핵, 서거, 사임 등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내각은 각료 중 1인을 총리대행으로 임명함. 총리대행은 의회 해산을 제외한 모든 총리의 권한을 가짐.

다. 이스라엘의 역대 총리

- 다비드 벵구리온 (1948 - 1954)
- 모세 샤레트 (1954 - 1955)
- 다비드 벵구리온 (1955 - 1963)
- 레비 에쉬콜 (1963 - 1969)
- 골다 메이어 (1969 - 1974)
- 이츠하크 라빈 (1974 - 1977)
- 메나헴 베긴 (1977 - 1983)
- 이츠하크 샤미르 (1983 - 1984)
- 시몬 페레스 (1984 - 1986)
- 이츠하크 샤미르 (1986 - 1992)
- 이츠하크 라빈 (1992 - 1995)
- 시몬 페레스 (1995 - 1996)
- 빈야민 네탄야후 (1996 - 1999)
- 에후드 바락 (1999 - 2001)
- 아리엘 샤론 (2001 - 2006.1)
- 에후드 올메르트 (2006.5- 2009.3) * 2006.1- 2006.5간 총리 대행

- 빈야민 네탄야후 (2009 - 2021)
- 나프탈리 베넷 (2021 - 현재)

라. 나프탈리 베넷(Naftali Bennett) 총리

- 출 생 : 1972. 3. 25생
- 학 력
 - 히브리대 졸(법학)
- 경 력
 - 2019-2020 국방장관
 - 2019 극우정당 야미나당 창당
 - 2015-2019 교육장관
 - 2013-2019 해외유대인 장관
 - 2013-2015 경제장관, 종교장관
 - 2013 제19대 국회의원
- 가족관계 : 부인(Gilat) 및 자녀 4명



마. 36대 내각 명단(2021.6.13)

- 야미나 당(3명)
 - 나프탈리 베넷 전반기(~2023.8.27.) 총리, 후반기 교체총리/내무장관
 - 아엘렛 샤케드 전반기 내무장관, 후반기 법무장관

- 마탄 카하나 종교서비스 장관
- 예쉬아티드 당(7명)
 - 야이르 라피드 전반기 교체총리 겸 외교장관, 후반기 총리
 - 요엘 라즈보조브 관광장관
 - 오르나 바르비바이 경제장관
 - 엘라자르 슈테른 정보담당장관
 - 메이라브 코헨 사회평등장관
 - 메이르 코헨 복지장관
 - 카린 엘하라르 에너지장관
- 새희망 당(4명)
 - 기드온 사알 부총리 겸 전반기 법무장관, 후반기 외교장관
 - 이팍 샤샤-비톤 교육장관
 - 요아즈 헨텔 통신장관
 - 제에브 엘킨 주택건설장관 겸 예루살렘담당 장관
- 이스라엘 베이테누 당(3명)
 - 아비돌 리베르만 재무장관
 - 오데드 포레르 농업장관 겸 네게브·갈릴리 개발장관
 - 하마드 암말 재무부 소속 장관
- 청백 당(4명)
 - 베니(빈야민) 간츠 부총리 겸 국방장관
 - 프니나 타마누 샤타 유대인이민통합장관
 - 힐리(야힐) 트로펠 문화스포츠장관
 - 오릿 파카쉬-하코헨 과학기술우주장관

- 노동당(3명)
 - 메라브 미하엘리 교통장관
 - 나흐만 샤이 해외유대인담당장관
 - 오멜 발-레브 공공안보장관
- 메레츠 당 (3명)
 - 니짤 호비츠 보건장관
 - 이사위 프리지 지역협력장관
 - 타말 잔드베르그 환경보호장관

5. 사법부

가. 사법부의 독립

- 사법부의 독립은 법으로 보장됨. 법관은 대법원 판사, 법조계 인사, 공직자 (장관, 의회 의원 등)로 구성된 특별 지명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법관의 정년은 70세임.
- 대법원장 : 에스더 하웃(2017.10월 취임)

나. 법원의 종류

- 치안판사재판소(판사 1명) 민사 및 경범죄, 민사 및 형사 관할
- 지방법원(판사 1명 또는 3명) 항소심, 민사 및 형사 관할

- 대법원(홀수의판사) 상고심, 사법정의를 위해 필요시 개입, 정부기관에 대한 청원 심리
- 특별법원(판사 1명) 교통, 노동, 청소년, 군사, 지방자치 단체에 관련된 행정법원
- 종교법원(판사 1명또는3명) 각 종교단체의 사법기관에 부여된 개인 신상 (결혼, 이혼, 양육비, 후견인, 입양 등)에 대한 관할

다. 이스라엘의 법

- 의회에서 제정된 법과 독립 선언에 구현된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1948년 건국 이전에 존재한 법도 유효함. 그 결과 이스라엘 법은 1917년까지 유효 하였던 오스만제국 법, 보통법을 계수한 대영제국 위임통치법, 유대교의 율법 및 기타 법 체제의 요소가 남아 있음.
- 건국 후 의회는 일련의 기본법(Basic Laws)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소위 Harari 제안), 이러한 기본법은 향후 헌법을 형성할 예정임(*이스라엘은 현재 성문헌법이 없음). 기본법은 대통령, 의회, 행정부, 사법부, 이스라엘 방위군, 감사원,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자유, 시민권/이민권, 예루살렘 지위, 국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기본법의 보통법에 대한 상위 규범성은 1995년에 대법원이 기본법을 위반 하는 법에 대한 심리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확립됨.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언론/집회/종교의 자유 및 평등을 이스라엘의 기본적 가치로 발전시켰으며, 개인의 정부기관에 대한 청원을 심판함.

6.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복지, 도로관리, 공원, 상수도, 위생, 소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지자체는 법률을 보완하기 위해 내무부 승인을 받은 조례에 따라 기능을 수행함.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어긴 사람들을 심리하는 특별 법정을 운영함. 지자체의 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과 지방세로 조달됨.
- 법률상 세 종류의 지자체가 있는데, 시(municipality)는 인구 2만 이상, 군(local council)은 인구 2천 내지 2만, 면(regional council)은 여러 개 부락을 관할함. 2015년 기준 75개의 시, 126개의 군, 54개의 면이 있음. 각 지자체는 시장과 지방 의회가 관리하며, 의원의 수는 관할지역의 인구에 따라 내무부가 결정함. 전체 지자체는 지자체연합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대해 지자체를 대표하게 함. 지자체연합은 의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모니터링하고 계약, 법률문제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국제 지자체연합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전 세계 비슷한 지방정부들과 유대관계를 형성, 도시 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표단을 교환함.
- 지방선거는 매 5년마다 비밀 투표로 행해짐. 모든 만 17세 이상(국회의원 선거는 18세)의 영주권자들은 이스라엘 시민 여부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고 21세 이상의 영주권자들은 피선거권을 보유함. 지자체 의회 선거에서 투표는 지방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대해 이루어지며 득표율에 따라 각 명부에서 의회 의원의 수가 결정됨. 시장과 군수는 직접 투표로 선출됨. 면 선거에서는 각 부락의 최다득표자가 의원으로 선출됨. 면장은 의원들이 선출함.

IV

군 사

1. 국방조직
2. 이스라엘군
3. 군복무의 종류
4. 군사력 현황
5. 대외군사협력 현황
6. 군수방위산업 현황

1. 국방 조직

가. 국방부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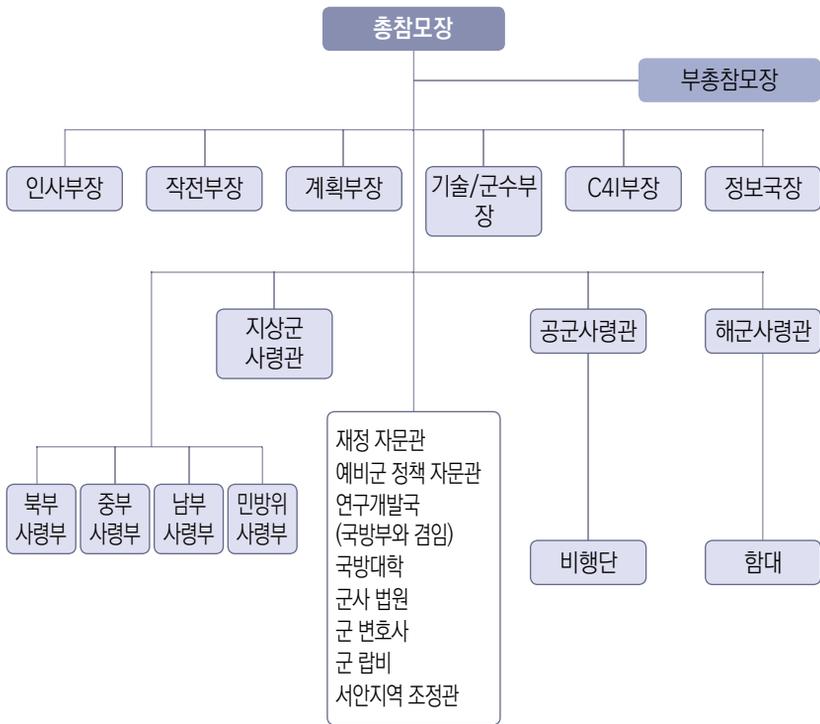


- 내각 수반(총리)에게 군 지휘권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이 사령관 기능을 수행함.
- 국방장관 예하 군출신 민간관료가 국방본부장으로 임명되며, 실질적인 국방

예산 획득, 무기체계 획득 및 연구개발 사업 관리/지원, 해외 방산 수출 정책 등의 주요 업무를 관장함.

- 국방차관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상징적인 위치로 후방지역 및 민방위 작전을 책임짐.

나. 이스라엘군(IDF) 총참모부 조직



- 총참모장(3성 장군) 휘하에 지상군 사령부(2성 장군) 및 3개 지역 사령부(2성 장군/지상군), 공군 사령부(2성 장군), 해군 사령부(2성 장군), 민방위 사령부(2성 장군)로 구성

- 지상군 사령부(소장)는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이 없고, 기갑, 보병, 포병, 공병의 훈련, 교리 및 장비 개발을 담당하며 사령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충하는 체제로 조정(J4 군수부가 지상군 사령부 예하로 배속됨)
- 공군/해군 사령부(소장)는 총참모장 지휘통제 하에 3군 통합작전 및 독자적으로 작전을 운영하고, 전력증강과 교육훈련을 담당
- 아울러 군정보국(Israel Defense Intelligence)이라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부대가 있는바, 총리, 의회, 국방장관, 총참모장, 국가정보기관(해외전담 ‘모사드’, 국내전담 ‘신벳’) 등에 정보를 제공하며, 각 정보기관과 유기적 정보 공유

2. 이스라엘군 (IDF: Israel Defense Forces)

가. 개요

- 1948년 창설된 이스라엘 방위군은 건국이후 현재까지 중요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방어함. 방위군의 당면 목적은 이스라엘의 영토, 주권을 방어하고, 모든 적과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억제하는 것임. 주요 임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함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의 전반적인 안보를 확립하고, 이스라엘 내외에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주도하며, 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해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임.
- 방어태세로 조기경보 능력을 갖춘 지상군, 공군 및 해군을 배치함.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주요 군사력은 예비군으로서 이들은 정기적인 훈련과



복무를 위해 소집되며 전쟁이나 위기 시 전국의 모든 부대로 동원됨. 총참모장이 3군을 통합 지휘하며, 3년 임기의 총참모장은 총리와 국방장관의 추천을 받아 정부가 임명함.

-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신병은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위임 교육과정에 등록하게 됨. 직업 장교는 복무기간 동안 희망자에 한하여 이스라엘 방위군의 비용으로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새로운 이민자들을 군대에 흡수하기 위해 히브리어 교육 및 기타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함.
- 기본적으로 사관학교는 없으며, 병사들 가운데 우수한 재원을 선발하여 장교훈련학교에서 소정의 기간 동안 훈련 후 장교로 임명함. 다만, 2005년부터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3년제 아카데미가 창설되어, 조종사들을 배출하고 있어 명목상 공군사관학교로 칭하고 있음.

나. Aviv Kochavi 총참모장 인적사항

○ 학 력

- 히브리대 철학 학사
- 미국 하버드대 공공행정학 석사
- Johns Hopkins대 국제관계학 석사



○ 경 력

- 1998~1999년 남부 레바논 지역 여단장 및 예비군 공수 여단장
- 2001~2003년 제35 공수여단장(2차 인타파다 기간 중 Operation Defensive Shield 참전)
- 2004~2006년 제98 공수 대대장 및 가자 사단장
- 2006~2010년 이스라엘 군 총참모부 작전부장

- 2010~2014년 이스라엘 군 정보국장(Operation Pillar of Defense 및 Operation Protective Edge 지휘)
 - 2014년 11월 이스라엘 군 부총참모장 취임
 - 2019년 1월 이스라엘 군 총참모장 취임
- ※ 2021년 5월 임기 연장 ('23.1.15까지 총 4년 수임)

3. 군복무의 종류

- 의무 복무 : 만 18세의 신체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징집.(남군 32개월, 여군 24개월 복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일부 우수학생의 경우 징집 유예 가능. 이민자 군복무는 나이와 입국 시 부여된 체류 지위에 따라 복무 기간이 결정되며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 예비군 복무 : 의무 복무를 마친 후 남군 및 일부 여군(전투병)은 예비군으로 등록됨. 남군의 경우 40-45세까지 연간 평균 약 1개월간 복무하나, 비상사태 발생 시 복무기간 연장 가능
- 직업군 복무 : 의무 복무 중 희망자는 일정한 자격 심사를 거쳐 장교나 하사관으로 임용 받을 수 있음. 직업군인은 이스라엘군의 지휘 및 행정의 중추를 구성함. 장교 양성교육(약 6개월), 조종사 학교 또는 군내 특수 기술학교 졸업자는 일정기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해야 함.

4. 군사력 현황

가. 이스라엘군 특징

- 전쟁전략 : 선제기습, 속전속결(항시 총기 및 실탄 휴대), 적 영토에서 전쟁 수행
- 전쟁수행 방법 : 자주적 전쟁수행(전쟁기획 및 작전수행)
- 정보수집 : 100% 독자 수집자산 보유
- 무기체제 개발 : IDF와 방산 업체 간 긴밀한 협력체제
- 군 운영체제 : 통합군 체제, 능력위주 군 간부 양성
- 부대 운영 : 전쟁 및 임무수행 위주, 현장지휘관에게 권한과 책임 위임
- 군에 대한 인식 : 사회 고위층 인사의 군 간부 경력 필수
- 예비군 운영 : 민·관 총력전 개념
- 사병복무 환경 : 다수가 출퇴근, 유대인의 필수 국민교육 과정
- 입대 인적자원 : 동일 연령·유대교 문화 등으로 강한 공동운명체 의식

나. 전쟁 경과

- 1948년 1차 중동전쟁(독립전쟁) 승리
 - 전쟁 중 이스라엘군(IDF) 창설
- 1950년 對테러(아랍국 대상) 보복작전 개시
- 1956년 2차 중동전쟁(수에즈 전쟁) 승리
- 1967년 3차 중동전쟁(6일전쟁) 승리
- 1967년 제한적 소모전쟁 수행 및 휴전 선언
- 1973년 4차 중동전쟁(욘키푸르 전쟁) 승리
- 1982년 1차 레바논 전쟁(PLO 대상) 승리
-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헤즈볼라 대상) 수행 및 휴전
- 2008년 Cast Lead 작전(하마스 대상) 개시 및 일방적 휴전 선언
- 2012년 Pillar of Defense 작전(하마스 대상) 개시 및 휴전 선언
- 2014년 Protective Edge 작전(하마스 대상) 개시 및 휴전 선언
- 2021년 Guardian of the walls 작전(하마스 대상) 개시 및 휴전 선언

다. 국방 정책/ 군사 전략

- 국방 정책
 - 적에 대한 기술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안전 확보, 최신 무기 체계와 질적 우세 유지에 노력, 무기의 상당 부분 이스라엘 자체 개발 및 제조
 - 전쟁 발발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쟁 억제 능력 유지
- 군사 전략
 - 이스라엘 영토가 협소하므로 필요시 방어보다는 선제공격(우세한 공군력 활용) 개념 적용
 - 공격을 당했을 경우 조속히 전장을 적의 영토로 이동
 - 전쟁 발발 초기 단계부터 전쟁지역을 적국 영토내로 전환하여 자국 내 피해 최소화
- 특수전 부대
 - Rimon 부대, Duvdevan 부대, Magaln 부대, Egoz 부대 등 특공부대 외에 특수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Sayeret Matkal 부대, 해병대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Shayetet 13 부대, 공군 예하의 비밀 작전 수행 부대인 Shaldag 부대, 특수 구조부대인 669 부대, Oketz 군견 부대, Yaltam 해저 작전 부대, Alpinist 특수 등반 부대, Yahalom 특수 공병대 등 각 군에서 독자적으로 특수부대를 운용

라. 전력 현황

- 병력 총괄 : 현역 169,500명, 예비군 465,000명
- 각 군별 세부 병력 및 장비

2020년 10월 기준

병력	주요 장비
(지상군) 현역 126,000명 예비군 40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 : 약 2,990대 · 자주포 536여대 · 박격포/방사포 : 530여문
(해군) 현역 9,500명 예비군 1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순찰/유도탄정 : 13척 · 공격 잠수함 : 돌핀급 5척 · 순찰/연안전투함 : Sa'ar 6급 초계함 4척 등 49척 · 상륙함 : 2척 · 보급 지원함 : 3척
(공군) 현역 34,000명 예비군 55,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능 전투기 : 245대 (F-15/33대, F-16/ 175대, F-35/27대 등) · 공중급유기 : 13대(KC-130H/4. KC-707/9) · 수송기 : 19대 · 헬기 : 128대(AH 64/48대 등) · 정찰기 : 30대(조기경보 2, 전자정보 3 등) · EO/SAR : 12대 이상 · 무인기 : 100여대(45시간 체공기 포함)

* 핵무기 관련 이스라엘 정부는 NCND 정책 고수

* 장성 : 중장 1명, 소장 20여명, 준장 80여명 등 총 100여명

- 국방비

(단위 : 억불)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방비(억불)	192.1	200.5	200.7	205	217
예산점유율(%)	14.5	14.2	13.5	13.3	12.1
GDP 대비점유율(%)	5.5	5.5	5.3	5.2	5.6

마. 이스라엘 엘리트 중심 부대 운용 (Talpiot 프로그램)

- (설립 배경) 1973년 욱키푸르전쟁에서 간신히 승리한 후 이스라엘 군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다양한 접근 시도
 - 1974년 히브리대 교수 2명이 이스라엘 공군을 통해 가장 창의성이 풍부한 시기인 군 입대시기 청년들 중 엘리트를 특별히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는 계획을 총참모장에게 제안함. 1975년 소수의 연구팀이 구성되어 2년간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Talpiot(히브리어로 난공불락의 강산 최고를 건설한다는 의미) 계획’이라고 명명함.
 - IDF내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여 관리한다는 계획은 초기에 많은 반대에 직면했으나, 1979년 이스라엘군 Rafael Eitan 참모총장의 결심과 지시로 프로그램이 개시됨.
- (선발 및 양성 과정) 매년 약 1만 명 이상의 후보자가 지원하며, 1차 심사 및 서류전형으로 1,000명을 선발 후 필답시험 및 개인 면접을 통해 120명을 선발함. 이후 2일 동안의 인성, 적성 및 팀 과제해결 등의 강도 높은 테스트를 통해 50명이 최종 선발됨. 대략 35~40명 정도가 과정을 수료함.
 - 최종 선발된 요원들은 히브리대학교에서 3년간의 위탁교육(학사 과정)을 받는 동안 수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등을 전공하는데 일반 학사과정보다 약 40% 많은 과목을 이수함.
 - 하계 12주를 이용하여 기본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공정부대 훈련과정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에 참여함. 또한, 정보국, 해군 및 공군의 특수훈련 과정을 이수하며, 이때 각 분야의 무기체계에 대해 교육받음.
 - 3년 후 수료 시 학사학위 획득과 동시에 중위로 임관하며 특히 모사드, 신베트, 군정보국 등 특수부대로 배속되어 6년간 의무복무(교육기간 포함 총 9년)하며 주로 연구개발부서 신무기개발 등에 참여함.

바. 동원 예비군 제도

○ 예비군의 역할

- 이스라엘의 적은 인구로 인해 최대의 전투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예비군의 전력화가 필수로, 전체 병력 중 예비군이 72%를 차지하는 등 예비군이 전투에서 중요한 전력

(과거 중동전쟁, 2006.7월 제2차 레바논 전쟁, 및 2008.12월 Cast Lead 및 2012.11월 Pillar of Defense, 2014.7월 Protective Edge 작전시 예비군이 주력 활동)

- 평시 최대의 훈련과 전문성을 보유토록 교육, 유사시 즉각적인 전력화 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평시 편제될 대대급 위주의 전투훈련(연 1주일)과 전투임무 수행으로 유사시 즉각적인 여단/사단급 편제화 가능
- 전투병과 출신 등 군의 필요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동원, 행정지원 병과 등의 예비군 자원은 군의 필요시에만 동원

- 동원 방법 : 공개 동원일 경우 언론, TV, 라디오 등 공중전파매체를 활용하나, 비밀 동원일 경우 해당 사단을 통해 개인별 통보

- 예비군 복무 연령 상한 : 40-45세

사. 이스라엘군의 개편 방향

○ 이스라엘 군 장기 개편 계획

- 지상군 전술 강화 및 개선,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 능력 다변화, 사이버 전 대응 능력 강화, 정보력 강화, 공군 및 해군 전력 강화
- 억지력, 신속성, 방어력, 결정적 조치의 중요성 등 이스라엘 군의 기본 핵심 가치를 채택하는 동시에 동시다발적 전투상황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 헤즈볼라, 하마스 등 비정규군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전 및 대테러 능력 강화
- 병력의 디지털화
 - 지휘본부와 야전 병력간 직접 연결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화 추구 (적 현황, 아군 위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휴대용 소형 컴퓨터를 활용, 실시간 공유)
 - 통합지휘통제체계(C4I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uter and Intelligence)의 전군 확대 추진
- 양성 평등
 - 남군과 여군의 평등한 군복무를 추구하는 가운데 남군의 복무기간 단축 및 여군의 전투임무 관련 역할 확대
- 이스라엘군 현대화 중점추진 사업
 - △탄도 미사일/로켓 방어체계 구축 △고도별 UAV 감시체제 확보 △기동력 및 대탱크전 능력 강화 △가자 지하터널 추적 능력 강화 △무인기, 무인 차량, 무인수상정 등 무인체계 개발 △인공지능기술의 다양한 활용

5. 대외군사협력 현황

- 미국, 인도, 독일, 영국, 러시아, 그리스, 중국, 사이프러스 등이 주요 군사 교류 국가임.
- (대미 군사협력)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방장관, 고위급 군 지휘관 간 교류 및 다양한 연합 훈련 등을 통해 긴밀할 국방 협력을 실시함. 베니 간츠 국방

장관과 아비브 코카비 총참모장은 2021년 6월 각각 미국을 방문하여 국방 장관, 국무장관 등 국방관계자들과 회담을 실시하였으며, 미 로이드 국방 장관은 2021. 4월 방이하여 베니 간츠 국방장관과 회담을 실시하는 등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양국 간 매우 긴밀한 국방협력이 지속되고 있음. 미-이스라엘 양국군은 Blue flag 연합훈련, Juniper Cobra 대탄도단 대응 연합 훈련 외 다수의 연합 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양국 간 군사협력 관련 주요 의제는 ▲대이란 공동 대응, ▲미국의 대 이스라엘 국방 지원, ▲역내 안정 및 이-팔 관계 등임.

- (대러시아 군사협력) 러시아가 2015년 10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후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시리아 영공 내 공중작전 관련 충돌방지 메커니즘(de-confliction mechanism)을 수립하여 이스라엘의 시리아 영공 내 군사작전 관련 긴밀히 협조해 왔음. 네탄야후 전 총리는 러시아를 빈번히 방문하여 푸틴 총리와 시리아 내 이스라엘-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 직접 논의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21년 초까지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베넷 신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러시아로부터 이스라엘의 영공 진입을 불허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바 양국 간 군사협력 관련 불확실성 및 변동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대인도 군사협력) 최근 수년간 인도의 군 현대화 및 국방력 강화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이스라엘-인도 간 국방 관련 교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양국은 국방기술 및 방위산업에 중점을 둔 국방협력을 기반으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였음.('20년 기준 이스라엘은 인도의 연간 무기수입 총액의 13% 점유하며 인도의 3대 무기 방산물자 제공국) 지난 8월 인도 바다우리아 공군 참모총장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과 F-15전투기 동반 비행을 실시하는 등 긴밀한 군사협력을 상징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기존 방산협력이 주를 이루던 양국 간 국방협력이 양국 간 군사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 (대독일 군사협력) 독일은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보상으로 무기도입 시 재정지원을 실시하며(신형 잠수함 5척 도입 및 Sa'ar 6급 군함 4척 건조 완료) 유럽 내 이스라엘의 최대 무역 대상국임. 독일은 미국의 이란핵협정 (JCPOA) 탈퇴, 주이스라엘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강경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이스라엘 방문이 추진(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인한 국제적 혼란으로 취소됨)되는 등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그리스 군사협력) 이스라엘과 그리스는 연례 연합 공중 훈련 및 연합 해상 훈련 등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20년 UAE, 바레인 등 걸프국가들과의 외교관계정상화의 영향으로 이스라엘-걸프 국가들(UAE, 바레인 등)과의 안보 협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 외 약 40개국 이상과 방산 무기판매 및 기술 교류 형태로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6. 군수방위산업 현황

- 첨단 무기체계 개발, 생산 및 고도의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방위산업을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육성 발전

- 항공기나 함정 같은 대형 무기체계의 기체 개발을 지양하고, 첨단 레이더 및 전자기술을 기본으로 한 핵심 시스템 및 부품중심의 개발체계 유지
- 연구 및 기술 중심의 방위 산업(높은 연구개발 투자 : 매출액의 8% 이상)
- 국내 수요보다 대외 무기수출에 중점
 - 자체 개발·생산 무기 체계 중 국내 수요 약 30%, 해외 수출 약 70%
- IDF와 방산업체간 밀접한 업무 협조체제 유지 및 미국의 군사원조(연 38억 불 규모)를 바탕으로 미국 무기체계와의 표준화 추구
- 2020년 주요 방산수출 분야

품 목	방산수출 총액 대비 비중
레이더 및 전자전장비	16%
탄약류	16%
유인기 및 항전장비	13%
정찰 및 광학장비	13%
미사일 및 방공체계	10%
지휘통신체계	8%
C4I 및 통신장비	8%
UAV 및 드론	6%

- 한-이스라엘 방산물자 수출입 실적

(단위:만불)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수 출	1,025	1,026	2,524	2,726	1,900	9,201
수 입	8,000	20,000	20,180	25,200	11,500	84,880
주 요 품 목	수출 : 항공기 부품, 통신장비 부품, 탄약류 등 수입 : 무인정찰기(Heron), 무인공격기(HARPY), 탄도탄 조기경보/함정용 레이더,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항공전자장비, 수송기 성능개량, 전자전장비 등					

○ 이스라엘 국제 국방 수출 규모

(단위 : 십억불)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5.7	6.5	9.2	7.5	7.2	8.3

○ 이스라엘 국방 수출 중 지역별 점유율

(2020년 기준)

구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별 점유율	4%	4%	20%	30%	44%

V

경 제

1. 이스라엘 경제 동향
2. 이스라엘 산업구조와 동향

1. 이스라엘 경제 동향

가. 이스라엘 거시 경제 동향

〈이스라엘 거시경제 지표 요약〉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3.8	3.6	3.5	3.4	-2.6
명목 GDP (\$)	3,186억불	3,526억불	3,704억불	3,946억불	4,026억불
정부부채 (% of GDP)	62.1	60.6	60.9	60.0	73.0
실업률(%)	4.8	4.2	4.0	3.8	4.3
상품수출액	521억불	530억불	541억불	519억불	500억불
상품수입액	650억불	680억불	756억불	757억불	694억불
상품무역수지	-128억불	-149억불	-215억불	-238억불	-194억불
서비스수출액	396억불	439억불	506억불	553억불	527억불
서비스수입액	264억불	292억불	305억불	325억불	274억불
서비스무역수지	132억불	147억불	201억불	228억불	253억불
외환보유고	954억불	1,130억불	1,150억불	1,260억불	1,425억불
이자율 (%, 중앙은행 기준)	0.1	0.1	0.25	0.25	0.14
환율 (자국통화)	3.84	3.6	3.59	3.56	3.2
물가상승률(%)	-0.5	0.2	0.8	0.8	-0.6

자료: IMF(2021), 이스라엘 통계청(2021), 이스라엘 중앙은행(2021), 이스라엘 경제부(2021)

나. 경제 현황 및 평가

- (양호한 거시경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거시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서비스 무역흑자가 상품 무역적자를 상쇄
- (주요 지출항목) 개인소비는 전년대비 -9.5%까지 하락, 주요 지출항목 중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기록함. GDP 기여도도 2019년보다 4% 하락한 52% 수준 지속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소비는 전년대비 2.7% 증가함. 인프라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11%)했고 뒤이어 사회복지(+9%), 행정 비용(7%) 순으로 지출이 증가함. 다만, 정부의 재정 확대 속도는 둔화(2018년 3.9%, 2019년 2.8%).
 - 투자는 지식재산 상품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이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4.8% 하락함. 건설투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전년대비 11% 증가, 투자액 합계 19억 달러 상당)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투자와 ICT 장비 투자가 각각 0.1%, 0.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기계 투자가 심한 부진(-41.6%)을 겪으며 전년대비 13% 감소
 - 2020년 이스라엘의 순수출은 기록적인 성장을 하며, 전체 GDP의 2.8%를 차지함. 수입 감소(-8%)가 순수출액 증가로 이어짐.
- (경제성장률) 코로나19 여파로 개인소비와 투자지출이 급감하면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8.5%까지 하락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과 실업급여 지급으로 3분기 이후 개인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며 경기위축 현상이 완화됨.
- (실업률) 2020년 연평균 실업률은 4.3%로 전년대비 0.5% 증가함. 생산가능 인구는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바 고용률은 전년대비 2% 하락함.

- (물가 및 금리) 2020년 3월부터 하락을 지속하던 소비자물가는 2021년 2월 상승 전환함. 2021년 3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p (전기 대비 0.3%p) 상승함.
- (환율) 신이스라엘세켈화(New Israel Shekel, NIS)는 2016년부터 꾸준히 절상되어 2021년 9월 현재 미국 달러당 3.2 세켈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제조업 생산) 2020년 제조업 생산지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6%p 성장

〈이스라엘 10대 제조업 생산지수, 2020년〉

순위	업종	전체 제조업 대비 비중	생산지수 (2011년=100)	전년대비 증감률
1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24.25	114.5	15.4
2	의료용 물질, 의약품	12.12	72.8	-6.9
3	식료품	10.52	115.4	1.9
4	금속가공제품 (기계장비 제외)	8.86	99.6	-9.3
5	석유, 화학제품	8.25	106.5	1.3
6	고무, 플라스틱제품	4.54	105.7	0.8
7	기타 운송장비	4.02	145.3	-4
8	기타 기계장비	3.66	119.8	-1
9	비금속광물제품	2.69	128.3	0.3
10	가구	1.98	145.3	-5.1

자료: 이스라엘 통계청(2020), 코트라(2021)

2. 이스라엘 산업구조와 동향

가. 개관

- (산업구조) 이스라엘의 전 산업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740억불임. 업종별 GDP 비중은 서비스업이 70%로 가장 높고, 이어 제조업 및 광업 17%, 건설업 9%, 농림수산업 2%, 전기수도가스 및 폐자원처리 2%임.
 - 이스라엘의 주요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사업자 수의 26.7%를 차지
 - 특히, 정보통신업은 전 산업 GDP 생산의 16%를 차지하며 이스라엘 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건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에서는 창업보다 폐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사업자 수 증가율이 상승한 반면, 여가 및 예술업과 물류운송업, 교육업은 창업이 급감하며 성장 정체를 기록

〈이스라엘 산업별 GDP 비중, 2020년〉

구분	서비스업	제조업 및 광업	건설업	전기가수도 및 폐자원처리	농림어업
GDP 비중	70%	17%	9%	2%	2%

자료: 이스라엘 통계청 (2021)

- (주요산업) 서비스업 중에서도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이 주를 이루며, 제조업에서는 의약품이 12%로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재생에너지, 디지털헬스 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고, 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 제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나. 재생에너지

- 이스라엘은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와 건축 분야에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 중
 -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바, 민간 투자를 적극 장려 중
 - 정부의 2030 재생에너지 활용 전력 증대 계획의 중점과제로는 △태양광 발전소 증설, △청정에너지 개발 투자 확대, △신축건물 재생에너지 발전 설치 의무화, △전기자동차 도입 촉진 등

다. 농업 및 첨단 식품가공 산업

- 기후적 특성과 물 부족 등으로 농업생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 (기후) 이스라엘의 기후는 열대성 기후와 온대성 기후로 뚜렷하게 교체 되는 계절적 경계 존재
 - * 4월-10월에는 덥고 건조하며 11월-3월까지 겨울은 온난하고 다습
 - (강수) 연간 강수량이 우리나라 평균의 40분의 1에 해당하며 물부족 극심
 - (경작지)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바 전체 면적의 20%만 경작 가능
 - 이스라엘 농업은 1948년 건국이전부터 농업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진바, 이스라엘 농업생산의 80%이상을 키부츠와 모샤브라는 농업공동체가 담당
- 이스라엘의 농업 총생산은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의 약 1/5 수준이며 물 부족 및 기타 열악한 환경 조건으로 물, 토지 및 인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농업기술 발전에 집중하면서 수출에도 많은 관심
- 이스라엘 정부는 북부 농촌지역 경제발전 전략으로 약 2,777만 불을 투자 하여 첨단 식품가공 산업을 육성

- 북부 지역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해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했으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북부지역 청년인구 유출 증가
- 이에 따라 정부는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 키르얏 슈모나(Kiryat Shmona)를 식품가공 산업 집중육성 지역으로 지정,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북부지역을 세계적 첨단 식품가공 산업거점으로 발전시켜 국가적 차원에서의 미래 산업 먹거리를 개발한다는 계획 추진

라.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헬스

- 인더스트리 4.0은 이스라엘의 제조 및 공정 분야에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임.
 - 인더스트리 4.0의 3대 추진과제는 ① 전통적 제조방식에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 및 수익 확대 추진, ② 첨단소재를 활용한 혁신상품 개발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확보, ③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 간 융합을 통해 생산 공정 및 공급관리 효율성 제고
 - 2019년에는 제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학협력을 위한 거점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첨단제조연구소’를 설립
 - 연구소의 주요 역할은 △전문가의 제조 현장 방문 및 기술 자문 제공, △세미나 등을 통해 최신 개발 기술 보급, △효율적인 생산체계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제조공정 시뮬레이션 지원 등
- 이스라엘은 디지털 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할 산업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육성 정책 추진
 - 디지털 헬스 산업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집중투자를 진행
 - 중점과제로는 △디지털 헬스분야 기업에 전자무의 진료기록 개방, △산·학·의료기관 간 협력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수 전문 인력 양성, △디지털헬스 제품에 대한 임상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촉진 등

마. 생명과학·바이오테크·의약분야

- 이스라엘 생명과학 산업에는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바, 이 중 40% 이상이 5년 미만의 신생기업이며 매년 약 80개의 신규 업체가 설립되는 만큼 기술 개발과 창업이 매우 활발
 - 세부 분야로는 의료가 57%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Biotech(19%), 제약 (11%), 의료IT(7%), AGBiotech(2%), 기타(4%) 등이 차지
-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대부분은 미국, EU, 캐나다 등 세계 100여 개국으로 수출됨.
 - 이 분야의 이스라엘 최대 기업은 글로벌 제약회사인 Teva로, 글로벌 업체 들의 이스라엘 생명과학 업체 인수합병도 매우 활발
 - * 주요 사례: covidien의 Giving Imaging 인수(9.7억불), OPKO Health의 PROLOR 인수(4.8억불), Allscripts의 dbmotion 인수(2.3억불), Fosun Pharma의 Alma Laser 2.2억불) 등
- 이스라엘 정부는 바이오테크 산업진흥을 위해 공개입찰을 통한 바이오제약 기술개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220만불 규모의 벤처기업 펀드를 조성 함(GP; Orbimed Partners Israel).

바.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 이스라엘은 19세기 말 유대인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에서부터 최근까지 크고 작은 전쟁을 통해 자주국방 및 방산역량을 크게 발전시킴.
- 사막으로 둘러싸인 주변지형에서 원거리 관측 및 전투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공군력 우선의 전투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서방의 정치외교 변화 영향과 무관한 독자적 방어능력 구축에 주력하여 핵무기 탑재가능 대륙간탄도

미사일, 대공방어시스템, 무인항공기 및 항공전자장비 등의 항공우주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옴.

- 이스라엘은 이미 1988년에 Ofek 1 첩보영상 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통해 세계에서 9번째 자체 위성발사 능력을 확보하는 등 세계 5~6위권의 항공우주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음.

〈이스라엘 주요 방위 산업 업체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분야
Elbit Systems	전투기, 헬기, 무인정찰기, 지대공미사일
IMI(Elbit 자회사)	폭약, 미사일 엔진
Elisra(Elbit 자회사)	항공기 방어 통제 및 레이더 시스템
Rafael	공격 및 방어용 미사일(아이언돔)
IAI	전투기, 항공기, 미사일과 항공전자 시스템
ECI Telecom	정보통신 솔루션

- 이스라엘 방산물자 수출 현황
 - 2020년 기준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 규모는 83억 달러로 전년도 72억 달러에 비해 15% 증가.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자전시 시스템 16%, 탄약 및 무기 16%, 항공기 및 항공전자계기 13%, 관측기기 13%, 미사일, 로켓 등 항공방어시스템 10%, 드론 6%, 사이버안보 시스템 5% 등
 - 주요 방산 수출 지역으로는 아시아가 44%로 비중이 가장 높음, 뒤를 이어 유럽 30%, 북미 20%, 아프리카 4%, 남미 2% 순

사. 녹색산업

- (태양열) 이스라엘은 태양광보다 태양열 분야가 앞서 있으며, 와이즈만 연구소, 벤구리온대학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태양열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미국,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상용화에 성공함.
 - 최근에는 Grid-Parity(일반 화력발전소와 대등한 전력단가) 수준으로 발전단가를 낮추는 것이 연구의 초점으로 이들 차세대 태양열 에너지 기업들이 국내외 글로벌 벤처투자의 이목 집중
 - 정부는 태양열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붕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는 가정이나 기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약 0.40 달러/Kwh로 구매하는 인센티브를 2008년 7월부터 도입
 - 태양 에너지관련 연구개발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어서 태양열 에너지 리시버, 대형 집광판(Dish), 열교환기, 마이크로터빈 등 주요 장비는 해외에 의존
- (폐수재처리) 이스라엘은 국토의 60% 이상이 사막으로서 물이 부족하나, 버리는 물을 재처리하여 재활용(재활용률 80% 이상)하고 해수를 담수화하여 필요한 물을 충당함.
 -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관개시설을 개발, 농업분야에서 70%를 상회하는 효율을 달성, 용수부족 시대에 글로벌 솔루션 제공 기여

아.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e-Commerce)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쇼핑몰이 고전하면서, 온라인으로의 쏠림이 더욱 가속화됨.

- 2019년 이스라엘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27.7%로 글로벌 평균 성장률인 20.7%를 상회
- 산업 내 경쟁 상황
 - 이스라엘 전자상거래시장에서 트래픽 점유율이 가장 높은 온라인 상점은 Yad2(8.92%), ZAP(8.29%), Aliexpress(7.06%), Amazon(5.94 %), 체인 슈퍼마켓 shufersal(4.56%), 의류전문 Fox Group(4.45%) 순

자. 정보통신 산업

- IT 산업은 이스라엘의 주요 기간산업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와 혁신 기술개발로 해외수출과 해외투자유치 견인
 -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분야가 정보통신기술산업(ICT)의 70% 이상 차지
 -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이버 보안, 가상화, 인터넷 앱 등
 - (IT서비스) 프로그래밍,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특히 전자정부, 금융서비스 같은 분야의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으로 꾸준히 성장 중
 - (하드웨어) 전자부품/칩 산업이 발달, 하드웨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여타 중동 국가와는 달리, 하드웨어의 자체 생산 및 수출이 가능함. 주요 수입 하드웨어는 컴퓨터 완제품, 수출 하드웨어는 전자부품
- 2021년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스라엘 첨단기술 스타트업 시장은 투자액 총 115억불 유치
 - * 이스라엘 경제부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산업 연구개발 정책 실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주요 투자분야는 인공지능, 핀테크 등이며 수출액은 2020년 기준 약 500억불 육

○ 해외 IT 스타트업 유치 정책

- 이스라엘 혁신청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시장에 관심을 가진 외국 스타트업 또는 창업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혁신 비자 프로그램 운영
- 혁신청은 또한 외국 스타트업의 입주가 가능한 12개의 인큐베이터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큐베이터 입주에 따른 특전으로 이스라엘 워킹 비자 발급을 지원

○ IT 스타트업 지원 정책

- 혁신청은 자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IT 기반의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
- 주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Tnufa (트누파)는 창업 초기 단계 특허 등록, 제품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창업 이후 단계의 기술을 상용화 시키는 부분에 초점

〈주요기업 현황〉

업체명	분야	주 제조, 생산 및 활동 분야
Intel Israel	전자부품	전자부품, 반도체
Amdocs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ICT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Check Point	IT 소프트웨어(정보보안)	정보보안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결합)
Mellanox	전자부품	전자부품, 반도체

VI

사 회 · 문 화

1. 개요
2. 종교
3. 히브리어
4. 교육
5. 고고학

1. 개요

가. 사회 문화적 특성

- 이스라엘은 국토가 좁으나, 세계 각국에서 이주한 다양한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갖는 유대인과 아랍인, 그 밖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가 역동적이고 활력적임. 사회구성원간 관계도 예의보다는 실리를 앞세우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융합되어 서로 차이를 수용하는 태도 형성
- 특히,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는 유랑생활(diaspora)의 난관을 체험하였고, 19세기 말부터 시온주의를 통해 조상의 땅을 되찾으려는 열망을 키워 옴. 이를 토대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발성과 평등주의에 근거한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치적, 사회적 특성을 구축해 가고 있음.
 - 이와 함께, 건국을 전후하여 소련 및 중동부 유럽으로부터 이주한 유대인들이 평등주의와 공동체사회 원칙에 기초하여 이상적인 농촌사회 건설을 시도한 키부츠는 새로운 사회모델로서 세계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
- 전체 인구 중 0-24세의 비율이 43.5%로서 OECD 국가의 평균(24%-31%)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가 비교적 역동적이며, 생산성이 높음.

나. 내부 갈등

- 지식인, 숙련된 노동자 등이 많은 유럽계 유대인들(특히 동구 및 독일계가 주류인 아슈케나짐)은 건국 초기부터 정치·경제·군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반면, 아프리카 중동계 유대인(스파르딤, 미즈라힘)과의 내부 갈등이 표출

되고 있으나, 점차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새로운 세대(사브라)들이 사회의 주류로 성장해 이러한 갈등구조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 유대사회 안에서 전통주의자와 개혁주의자간의 갈등과 함께, 최근 구소련 붕괴 후 대규모로 이주한 새로운 이주민들도 정치세력화에 성공해 이익집단화에 따라 새로운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
-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유대 정통파 종교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 의무를 이행하는 비종교인과 종교인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2014년 3월 이스라엘 의회(크네셋)가 유대 정통파 종교인의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시행이 보류됨.
 - 2017.9월 이스라엘 대법원이 현재 시행중인 종교인 병역 특혜가 평등권에 위배되며 향후 1년 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입법 촉구한 바, 이후 병역법 개정안을 두고 유대 종교당(Shas, UTJ)과 세속주의 극우정당(Yisrael Beiteinu)간 반목이 노정되면서 급기야 연정이 붕괴되는 사태 발생
 - 2021년 6월 출범한 벤텔 정부에서도 병역 특례와 코셔 식품 인증을 비롯한 각종 초정통파 종교인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사회평등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가속되면서 논란 대두
- 이스라엘 의회가 2018년 7월 ‘유대민족 국가법(Nation-State Law)’을 기본법(Basic law)으로 제정하여, △국가 기본원칙, △국가 상징 및 수도, 언어, △유대인 정착 등을 규정한바, 이스라엘 내 소수 민족인 아랍인과 드루즈인을 중심으로 비판과 반대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기본법 내 국가가 단일한 신념과 민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승인한다는 ‘유대인정착’ 관련 내용과 ▲유대인에게만 부여된 민족적 자결권 및 ▲아랍어를 기존 공용어 지위 대신 특별지위(special status)를 부여한 것 등이 주요 갈등 요소

2. 종교

가. 종교의 자유

- 이스라엘 건국 선언문(1948)은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 각각의 종교 공동체는 안식일, 신앙생활, 내부 문제를 관리하는데 있어 자유로움. 각 종교는 법에 의해 종교 의회와 법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며, 종교 법원은 결혼, 이혼과 같은 개인의 신상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가짐.

나. 종교 사원의 종류

- 유대인 회당(synagogue) : 전통적인 유대교 예배는 성인 남자 열 명이 모여야 가능함. 매일 세 번의 기도를 드리며 회당에서는 남녀가 분리되어 앉음. 예배는 랍비, 선창자 또는 회중의 한 사람에게 의해 주도됨. 랍비는 신과의 중계자는 아니며 선생의 역할만을 담당함. 회당의 중심은 신성한 궤(holy ark)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산(Mount of Temple)을 향하며 안에 토라(모세 5경) 두루마리를 넣음. 매일 읽는 토라 분량이 정해져 있으며 1년이면 토라 전체를 읽게 됨.
- 이슬람 사원(mosque) :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여야 함. 사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 예배를 보고 신발을 벗어야 하고 의식적 세정식이 거행됨. 무슬림들은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데 메카의 방향은 사원 벽면에 ‘미라브’라는 틈새로 표시됨. 예배는 이맘이라는 무슬림 예배 지도자에 의해 거행됨. 금요일은 전통적 무슬림 안식일로 대중설교가 있음.

- 교회(church) : 기독교 예배의 형식과 횡수는 종파에 따라 다름. 기독교의 예배는 일요일(주일)이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휴일이 토요일(안식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독교회나 메시아유대인교회는 대부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림.

다. 성지

- 성지는 각 종교가 직권으로 관리하고 예배의 자유는 법에 의해 보장됨.
 - 유대교도 : 통곡의 벽과 성전산, 라헬의 무덤, 헤브론 소재 막벨라 동굴 안에 있는 족장의 무덤,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의 무덤 등
 - 이슬람교도 : 성전산에 있는 하람 알 샤리프, '바위 사원'과 알악사 이슬람 사원, 헤브론에 있는 족장들의 무덤, 아크레에 있는 엘자자르의 이슬람 사원 등
 - 기독교도 :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마가의 다락방(최후의 만찬), 비아 돌로로사(십자가의 길)와 예수무덤(성묘) 교회,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 나사렛의 수태고지 교회, 갈릴리의 오병이어 교회, 팔복교회, 베드로 수위권 교회, 가버나움 회당 등
 - 드루즈족 : 갈릴리에 있는 히틴 혼스 가까이에 있는 네비 슈에이브(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무덤) 등
 - 바하이(19세기 중반에 이란에서 창시) : 하이파에 있는 바하이 월드센터, 아크레 부근에 있는 바하이교의 창시자 바하알라의 전당

라. 코셔(Kosher) 및 인증제도

1) 코셔

- 유대교의 율법 카쉬루트(kashrut)에 의하여 먹기에 합당한 음식을 의미하며, 카쉬루트는 먹기에 합당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음.
- 코셔 식품
 - 육류 중 되새김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동물(예: 소, 양, 사슴 등)
 - 어류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예: 도미, 연어 등)
 - 조류 중에서 닭, 칠면조, 오리 등의 가금류
- 채소와 과일은 일반적으로 코셔로 합당함.
- 코셔가 아닌 식품
 - 육류 중 되새김을 하지 않거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예: 돼지, 토끼, 말 등)
 - 어류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코셔가 아님(예: 오징어, 새우, 굴 등)
 - 조류 중에서 야생조류와 육식성 조류(예: 독수리, 매 등)
- 코셔인 조류나 육류라 할지라도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도살하고, 소금을 사용하여 피를 제거해야만 함. 소금을 쓰지 않고 불에 구워서 피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음. 코셔인 육류라 할지라도 우유, 치즈 등 유제품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됨.
- 카쉬루트는 식기에도 적용됨. 코셔가 아닌 음식이 담기거나 닿았던 식기는 코셔가 아니므로 반드시 정화시켜 사용해야 함. 그 방법으로는 끓는 물에 삶거나 더러워진 부분을 불로 지져 소독하는 것 등이 있음. 만약 가연성

제품이라면 하루 동안 격리시켜 놓았다가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육류와 육제품에 사용한 식기는 분류해서 각각 정화해야 함.

- 농경지는 매 7년째 되는 해에 휴경해야 함.
- 우유를 먹고 1-2시간 후에는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고기를 먹고 나서는 6시간 후에나 우유를 마셔야 함.

2) 코셔 인증제도

- 유대교 율법의 음식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코셔 인증서는 유대교 랍비로부터 받아야 하며, 육류 및 육류제품에 코셔 인증서가 없을 경우, 수입이 금지됨.
-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국내에서 코셔 인증서가 없는 육류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외국산 육류에 대한 차별조치임.
- 육류 및 육류제품을 제외한 음식물을 수입할 때 코셔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요자들이 코셔 인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코셔 인증이 없는 상품일 경우 판매가 제한됨.
-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식품 중 코셔 인증을 받는 것으로는 한국 네슬레가 생산하는 Taster's Choice 인스턴트 커피가 대표적임.
- 코셔 음식은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요즘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 감. 코셔 제품을 소비하는 20% 정도만이 유대인이고 나머지 80%는 국가, 인종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는 소비자임. 실제로 코셔 제품 시장은 지난 십 수 년 간 연평균 10-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규모는 약 2,500억 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외국음식들도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코셔 마크를 획득해서 코셔 인지도가 높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함. 한편, 우리나라에서 코셔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수가 100여 개에 지나지 않음.
- 코셔 식품이 유기농법에 의해 청정하게 생산된 건강식품 및 웰빙식품으로 간주되는 만큼 우리 업체들도 동 인증서를 적극적으로 획득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필요가 제기됨.

3. 히브리어

-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국어로, AD 200년경부터 사실상 구어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나, 기도서, 철학과 문학에서는 성스러운 언어로 간주되어 계속 사용됨. 히브리어는 19세기말 정치적 시오니즘의 절정을 이룬 국가부활운동의 중요한 요소가 됨. 영국의 위임통치 기간 히브리어는 영어, 아랍어와 함께 공용어로 인정되었고 유대인 기관들과 유대인 교육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됨. 히브리어 언론과 문학은 새로운 작가와 독자에 의해 발전됨. 현재 어휘는 성서 시대의 약 8,000 단어에서 120,000 단어 이상

으로 늘어남. 히브리어 연구회(1953년 설립)는 히브리어 발전을 주도하는 공식 기관임.

- 엘리에젤 벤예후다(1858-1922년) : 엘리에젤 벤예후다는 히브리어를 살아있는 생활언어로 부활시키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함. 러시아령 벨라루시 태생으로 이스라엘에 이민 온 (1881년) 후 가정과 학교에서 히브리어의 사용을 선도하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히브리어로 정기간행물을 발간함(1884년). 또한 히브리어위원회를 공동으로 설립했으며(1890년), 1910년부터 1959년까지 그의 미망인과 아들이 <고대와 현대의 히브리어 대사전> 17권을 완성함.



4. 교육

가. 교육 목표

- 이스라엘의 교육은 어린이들을 다원화,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나. 취학 전 아동 교육

- 3세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의 유치원 교육은 무료이며 의무사항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 사립 유치원,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일종의 데이케어센터) 유치원이 있음.

- 이러한 유치원 교육을 통해 언어발달과 놀이집단을 통한 사회교육에 치중함.

다. 학교 제도

- 이스라엘은 사회·문화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어, 학교의 종류도 일반 국공립 학교(대부분의 학생이 이곳에서 수학), 국립 종교학교(유대인 전통에 중점을 둔 학습), 사립학교, 정통 유대계 학교, 아랍계 학교, 드루즈계 학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학교 관련 통계 자료(2017학년도 기준, 출처 : 이스라엘 교육부)
 - 학교(초·중·고)수 : 5,176개, 학급 수 : 71,658개, 교직원 수 : 158,052명
 - 학교(초·중·고)별 학생수 : 국공립 760,008명, 국립종교 241,531명, 정통 유대 319,782
 - 초·중·고등 학생수 : 유대인(1,321,321명), 아랍인(440,923명)
- 3세(유치원)에 취학하여 18세(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며, 초등학교(1-6학년), 중학교(intermediate school, 7-9학년), 고등학교(secondary school, 10-12학년)로 구분되어 있음.
- 교육 과정은 이스라엘 정부(교육부)가 지정하는 의무교육 과정이 있으며, 또한 각 학교는 학생들의 필요 및 지역사회의 요구 등에 따라 교육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과정 선택의 자유가 허용됨.
 - 교과목 : 히브리어, 영어 및 제2외국어, 성경, 문학, 수학, 역사, 지리, 과학(생물, 화학, 물리), 예체능 등. 단, 학교별(국공립, 국립종교, 사립, 정통 유대계, 아랍계, 드루즈계 학교 등)로 교과목에 다소 차이
- 대학 : 히브리 대학(예루살렘 소재), 텔아비브 대학(텔아비브 소재), 하이파 대학(하이파 소재), 바르일란 대학(라마트간 소재), 벤구리온 대학(브엘세바

소재), 테크니온 공과대학(하이파 소재), 와이즈만 연구소(르호봇 소재) 등 종합대학과 여타 단과대학 존재

라. 교육열 및 계층 간 교육차이

-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교육열이 높다고 평가됨. 특히 전 교육 과정에 걸쳐, 학교는 학생들이 정해진 답을 찾고 암기하기 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도록 장려함. 기존의 주장이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함으로써 새로운 주장이나 이론을 정립하도록 독려하는 등 창조성과 토론을 강조하는 교육에 주안점을 둬. 국민의 독서율도 아주 높음.
- 계층별 교육차가 상당히 크며, 이러한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주로 사회·경제적 배경, 종교·민족적 배경(학업 성적 및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은 유대계 학교와 그렇지 못한 아랍계 학교 간 차이), 학교별 특성(국립종교, 정통유대, 사립 등)에 기인

마. 이스라엘 중·고등 영재학교

- 이스라엘 예술·과학 아카데미(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 IASA)



- 대표적 영재학교인 이스라엘 예술·과학 아카데미(IASA)는 이스라엘 내 예술·과학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특수교육기관으로 약 20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기숙학교로 운영

- 예루살렘에 위치한 IASA는 1990년 저명한 교육자인 라피 암람에 의해 설립됨. 이스라엘 내 가장 우수한 학교의 하나로 유대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은 통합적 교육기관으로 유명
- IASA의 교육철학은 예술·과학 분야에서의 탁월한 재능뿐만 아니라 리더십, 사회적 책임감, 다원주의, 민주적인 사고 등을 중시하여 학생들의 개별적인 소질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강의를 최소화하여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
- IASA는 예술부(시각예술, 조소, 음악), 과학부(수학, 화학, 물리학, 생물학, 컴퓨터 공학), 인문학부(역사, 성서, 유대교 철학, 문학)로 이루어지며, 일반 교육 과정 외 필수 이수과목으로 제2언어(아랍어, 불어, 라틴어) 지정
- 이스라엘 영재교육센터(Israel Center for Excellence through Education, ICEE)
 - 1987년 영재교육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교육부내 영재학생 담당부서 및 과학기술청과 협력하여 다양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IASA 등 영재교육기관에 이를 적용·시행

5. 고고학

- 이스라엘의 고고학은 수 천 년 동안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귀중한 연결 고리로 약 3,500여 곳의 유적지가 있음. 예루살렘 구시가(old city)의 유대인 구역, 다윗 성, 이즈르엘 골짜기의 므깃도, 헤롯대왕이 건설한 요새와 도시들(맛사다, 헤로디움, 케사리아 등), 유대교 회당, 2천 년 전의 구약성서 사본이 발견된 쿨란 동굴 등 수많은 유적이 남아 있음. 수세기에 걸친 발굴은 유대인 이외에도 그 땅에 자취를 남겨 놓은 다른 문명의 흔적들도 밝혀냄.

VII

중동 평화

1. 분쟁 근원
2. 이-팔간 평화 협상과정
3. 여타 인접국과의 협상과정

1. 분쟁 근원

-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diaspora) 유대인들은 1948.5.14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the State of Israel)’을 건국함으로써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 아랍권과도 마찰이 발생함.
- 이후 4차례 중동전쟁(1948년 독립 전쟁, 1956년 시나이 전쟁, 1967년 6일 전쟁, 1973년 욘키푸르 전쟁) 및 팔레스타인(PLO)의 대이스라엘 테러 행위가 계속되면서 이-팔 분쟁은 중동 문제의 핵심 과제로 대두함.
- 인티파다(intifada)로 불리는 팔레스타인 민중봉기가 1987년부터 1993년 (Oslo Accord)까지 및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하여 이-팔 관계는 더욱 악화됨.
 - ※ 아랍어 인티파다(intifada)는 ‘떨쳐내다’, ‘잠에서 깨다’ 등의 뜻을 지님.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점령 통치에 따른 팔레스타인들의 고통 및 저항(민중 봉기)을 의미함. 제1차 인티파다는 87.12월 가자지구 에레츠 통행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제2차 봉기는 2000년 샤론 리쿠드당 대표의 성전산 진입 시도로 인해 발생

2. 이-팔간 평화 협상과정

가. 개관

- ① 마드리드 평화회담(1991년 10월), ② 오슬로 협정(1993년 9월) ③ Quartet (미, EU, UN, 러)에 의한 중동평화 로드맵(2003년 4월)등으로 이-팔 평화과정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함.

나. 마드리드 평화 회담(1991년)

-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조약 체결 (1979년) 이후 국제사회와 이-팔 양측이 중동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임. 이러한 결과로 1991년 미국과 소련의 후원으로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마드리드 평화회담이 열림. 이 회담은 이후 중동평화를 위한 양자 간 및 다자간 협상의 토대가 됨.



다. 오슬로 협상(1993년)

- 이스라엘과 PLO가 오슬로에서 수개월 간 접촉한 끝에 팔레스타인에게 가자 지구와 서안에서 자치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이 마련됨. 원칙선언에 앞서 아라파트와 라빈 총리는 서신 교환을 통해 PLO는 ① 테러행위를 중단하고 ② PLO 헌장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인하는 조항을 삭제키로 함. 이스라엘은 ③ PLO를 팔레스타인 민족의 대표 기구로 인정함.
- 원칙선언(DOP)은 1993년 9월 워싱턴에서 서명되었으며 5년에 걸친 팔레스타인 4단계 자치에 관해 양측의 기본합의를 규정함.
 - 1단계로 1994년 5월 가자지구와 예리코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인정
 - 2단계로 1994년 8월 서안지구 내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직접세, 관광 분야에 있어 팔레스타인에게 권한과 책임 이양



- 3단계에서 양측은 1995년 9월 이-팔간 잠정합의에 서명한바, 팔레스타인이 내부문제를 관할할 자치의회를 선출, 서안의 자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의회가 1996년 1월 최초 선출됨. 한편, 잠정합의에 따른 서안지구 내 지역 구분은 아래와 같음.



- 지역 A : 팔레스타인이 군사, 공공질서와 행정 관련 권한과 책임을 모두 보유
- 지역 B : 팔레스타인은 공공질서, 행정 분야에서 책임을 갖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시민들의 안전, 테러 등 안보 분야에서 책임을 담당
- 지역 C : 정착촌과 전략적 중요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이 행정, 안보, 공공질서까지 책임짐.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관할권을 제외한 행정 부문에만 책임을 짐.

- 4단계는 예정대로 1996년 5월 시작되어 난민, 정착촌, 안보, 국경, 예루살렘 등에 관한 최종지위협정 체결문제를 다루게 됨. 그러나 1996년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감행한 자살폭탄 테러는 평화협상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함.

- 이후 회담은 3년간 중지 되었다가 1999년 9월 샤름 엘 셰이크 평화협정 (Sharm el-Sheikh Memorandum)을 계기로 재개됨.
- 또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스라엘 바락 총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라파트는 2000년 7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짐. 그러나 동 회담도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막을 내림.

라. 4자 로드맵(2003년)

- 2000년 9월 샤론 총리의 예루살렘 성전산 방문을 계기로 제2차 인티파다가 발생하여 최종지위 협상은 완전히 결렬되었고, 팔레스타인의 테러와 이스라엘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함. 부시 미대통령은 2002년 6월 ① 팔레스타인 민주개혁을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 ②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③ 팔레스타인 임시국가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동 평화안을 발표함.
 - 동 평화안은 사실상 아라파트의 축출을 의미하는 팔 지도부 교체를 전제로 하고 있고, 평화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
- 2002년 9월 중동평화를 위한 4자(Quartet, 미국, 러시아, EU, UN) 외무장관 회담에서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국가를 창설키로 하는 기본 방안에 합의함. 마침내 2003년 4월 30일 Quartet이 이행 중심, 목표 중심의 중동평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이를 이-팔 양측이 수용함.

 - 1단계(2003년 5월까지) : 테러와 폭력 종식, 정착촌 건설 동결, 불법 전초기지 철거
 - 2단계(2003년 12월까지) : 팔레스타인 헌법 제정, 임시국경과 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 3단계(2005년까지) : 국경, 예루살렘, 난민, 정착촌 문제를 위시한 항구적 지위 협정 체결
- 로드맵의 제1단계 의무사항인 테러와 폭력의 종식 및 정착촌 건설 동결 및 불법 전초기지 철거조차 이행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팔의 민간인 차원에서 난민, 예루살렘, 정착촌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룬 제네바 합의를

2003년 12월 1일 발표함. 이스라엘 샤론 정부는 2003년 12월 18일 로드맵이 실패할 경우에 일방적 분리 정책(disengagement)을 취하겠다고 발표함.

마. 이스라엘의 분리정책 및 하마스의 등장

- 2004년 11월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전 수반의 사망에 따라 2005년 1월 실시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선거에서 보다 온건한 마무드 압바스 PLO 의장이 62%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되고, 2005년 2월 Sharm El-Sheikh 중동평화회담(이스라엘, 이집트, 팔레스타인, 요르단)이 개최되어 이-팔 대화의 재개됨.
- 2005년 3월에는 팔레스타인 내 제정파간 회의를 통해 대이스라엘 휴전 유지에 합의하고, 샤론 총리가 2003년 3월 발표한 대로 2005년 8월 가자 전역 및 서안지구 일부로부터 이스라엘 정착촌을 철수하는 분리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간헐적인 자살테러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팔간 대화의 동력은 유지됨.
- 그러나, 2006년 1월 실시된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재야 무장 세력인 하마스(Hamas)가 압도적 승리(총 133석중 74석 차지)를 거두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팔간 전면 경색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음.
 - 이스라엘과 Quartet(미국, 러시아, EU, UN) 등은 하마스가 세 가지 조건(이스라엘 인정, 테러 포기, 이전 합의 준수)을 수용하지 않는 한, 하마스와의 접촉을 끊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도 중단한다는 입장을 취해 오고 있음.(단,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 위한 국제 지원체계를 설립, 운용 중)
- 더구나, 2006년 6월에는 가자지구에서 일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Popular Resistance Committee, 하마스 무장 분파 등)에 의한 이스라엘군(IDF) 부대 공격 및 병사 1명 납치 사건이 발생, 이스라엘 측의 대대적인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팔레스타인 측의 간헐적인 로켓 공격 등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양측 간 대화 재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함.

- 또한, 2006년 7월 남부 레바논을 장악하고 있던 헤즈볼라 세력이 이스라엘군 부대를 공격하여 병사 2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스라엘이 이에 대응하여 헤즈볼라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레바논전쟁이 발발함.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를 통해 34일 만에 휴전이 성립되었는데, 동 사태는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고 팔측 과격 세력의 대이스라엘 투쟁 의욕을 고양시킴.
 - 단, 과격 이슬람 세력의 위협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이스라엘과 온건 아랍국을 중심으로 이-팔 평화과정 재개필요성은 제고됨.
- 우여곡절 끝에 2007년 3월 팔레스타인 국민통합정부(수반: 마무드 압바스, 총리: 이스마일 하니예)가 출범하였지만, 2007년 6월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완전 장악함으로써 통합정부는 와해되고, 팔레스타인은 파타 중심의 서안 지구 자치정부 및 하마스 중심의 가자지구 자치정부로 분열됨. 미국, 이스라엘, 온건 아랍 국가들은 압바스가 이끄는 서안 팔레스타인 정부를 지원하고 있고,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등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등 중동지역 내 온건세력과 과격세력간 대립이 그대로 팔레스타인에도 투영됨.

바. 아나폴리스 회의 및 이후 동향

- 부시 미 대통령 주도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및 아랍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 11월 아나폴리스 회의가 개최되어 이-팔 평화협상을 2008년 말까지 완료키로 함. 이후 이스라엘 올메르트 총리 및 팔레스타인 압바스 수반간의 수시 접촉 등을 통해 2국가 방안(Two States Solution)에 바탕을 둔 최종 지위 협상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올메르트 총리가 부정



부패 혐의로 총리직 사임을 발표(2008년 9월)하고 이스라엘-가자분쟁 (Operation Cast Lead, 2008.12월)이 발발함으로써 이-팔 평화협상은 중단 되었음.

- 이스라엘은 2008년 6월 하마스와 체결한 6개월간 휴전합의가 종료된 2008년 12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로켓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Cast Lead)을 개시, 가자지구 내 하마스 군사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난 후,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함.
-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포괄적인 중동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팔 평화를 추진하였으나, 보수·우익 성향의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 및 팔레스타인 압바스 수반측간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전이 없었음.
- 2010년 들어 네타냐후 정부는 서안지구에 대한 신규 정착촌 건설 허가를 9개월간 중지하고,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간접협상 (proximity talks) 및 네타냐후 총리-압바스 수반 간 직접협상이 개최되었음. 그러나 이스라엘이 2010년 9월 서안지역 정착촌 건설을 재개하고 팔레스타인은 서안지구 및 예루살렘 내 정착촌 건설 중지를 협상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함.
 - 2012년 초 요르단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직접 협상 재개를 위한 5차례의 실무회담(exploratory talks)이 개최되었으나 성과 없이 종료됨.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중재로 2013년 7월부터 9개월의 협상시한을 정한 이-팔간 평화협상이 재개됨. 2014년 4월말에도 이-팔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협상은 성과 없이 종료됨. 마틴 인다이크 미 중동특사는 이스라엘의 비협조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반면, 미 국무부는 이-팔 양측이 모두 비협조적이었다고 평가함.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하마스를 포함한 제 정파를 포괄하여 통합정부를 구성한데 반발하여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

- 2015년 5월 재집권한 네타냐후 정부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스라엘을 유대 국가로 인정할 것과 테러중식을 이-팔 평화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제시한 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정착촌 건설 중단을 전제로 이-팔 협상 재개를 주장하는 등 여전히 시각차를 보임.
- 프랑스 주도 이-팔 문제 관련 장관급 국제회의가 2016년 6월, 2017년 1월 2회 개최되어 국제사회의 이-팔 문제에 대한 이목이 다시금 집중되기도 하였으나, △당사자인 이-팔의 불참, △이슬람국가(ISIS) 및 이란핵합의에 대한 이슈분산 등으로 큰 기여는 하지 못함.
- 2017년 1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2017년 12월), △이란핵합의 파기(2018년 5월), △예루살렘, 골란고원 등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골란고원, 정착촌 방문(2020년 11월) 등 친이스라엘 성향의 행보를 보임.
 - 특히 임기 초부터 중동평화 협상을 위해 임명한 쿠쉬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중심으로 2020년 1월 △서안지구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인정, △동예루살렘에 팔 국가 건설 및 금융 제공안, △새 정착촌 건설 임시 동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중동평화구상(Middle East Peace Plan)을 발표함. 동 평화구상 발표 직후 팔레스타인, 이슬람협력기구(OIC), 국제사회로부터 이스라엘 편향의 평화구상이라고 비판했으며 팔레스타인과 아랍권 국가들은 동 평화구상 반대 성명을 발표함.
 - 이-팔 문제 등으로 그동안 중동에서 외교적 고립을 면치 못했던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하 2020년 9월 15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관계정상화 합의문(아브라함 협정, 이-바 관계정상화 합의)에 공식 서명함. 이는 이-이집트 수교(1979), 이-요르단 수교(1994) 이후 16년만의 이-아랍국 간 수교였으며 이후 수단, 모로코도 이스라엘과 관계정상화에 합의함. 다만 팔레스타인과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과의 화해 없는 아랍국 수교는 이-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함.

- 2021년 3월 22일 총선으로 이스라엘 역사 상 최장기 집권(15년) 네탄야후 총리가 실각하고 극우파 야미나당 소속 베넷 대표와 중도좌파 예쉬아티드당 라피드 대표가 2년 임기의 총리직 교체 수임을 조건으로 연정 구성에 합의, 2021년 6월 13일 베넷 총리-라피드 교체총리 겸 외교장관의 연립정부가 공식 출범함. 베넷-라피드 정부는 중도좌우, 아랍계 정당까지 연합한 형태로서 이-팔 문제, 정착촌 등 연정 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회피하고 코로나19 대응, 경제 부양 등 국내 긴급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대함.
 - 또한 바이든 미 행정부도 트럼프 전 행정부와는 달리 이-팔 문제, 정착촌 문제에서는 베넷-라피드 정부와 대립할 여지가 큰바, 전통적 외교관계, 실리에 근거한 대이스라엘 및 중동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임. 2021년 8월 베넷 총리-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이란핵문제, 코로나19 대응 공조 등 양국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 미국의 대팔 영사관 재개,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 등의 문제에서는 이견을 노정했으나 네탄야후 전 총리-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립한 선례와 달리 이-미 양국의 대립을 대외에 노출하는 것은 최대한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됨.
 - 아울러 2021년 7월 취임한 헤르초그 신임 대통령과 간츠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로서는 수 십년만에 압바스 팔 자치정부 수반과 전화통화 및 면담한바 전문가들은 이-팔 평화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팔(PA) 간 긴장완화 및 대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

3. 여타 인접국과의 협상과정

가. 이스라엘과 시리아

- 이-시리아간 관계의 핵심사항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당시 점령한 골란 고원 반환문제인바, 이스라엘은 조건 없는 이-시리아간 대화를 주장한 반면, 시리아는 골란고원의 반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마드리드 회담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시리아간 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1995년 12월 및 1996년 1월) 안보와 기타 중요 문제를 다루었으나 이후 3년 동안 회담이 중단됨. 또한 2000년 1월 미국의 쉐퍼드타운에서 양자회담이 재개되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2000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클린턴 미 대통령과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간의 회담도 협상을 재개시키지 못하고 무위로 끝남. 아사드 대통령이 2003년 12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미국의 선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해석하여 일축한 바 있음.
- 2006년 7월 제2차 레바논 전쟁 이후 시리아 측에서 아사드 대통령 등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을 재개할 용의를 표명하고, 이스라엘 내 일부에서도 이란의 핵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시리아를 이란으로부터 분리시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리아와 평화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러나, 미국 부시 행정부는 시리아가 헤즈볼라 지원, 레바논 내정간섭, 하마스 지원 등을 중단하고, 이라크로의 테러분자 잠입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등 압박 정책을 취함.
- 이스라엘은 2008.5월 터키 중재 하에 간접 방식으로 시리아와 평화 교섭을 재개키로 하고 이후 평화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08년 12월 가자 군사작전 이후 동 협상은 중단되었음.

-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봉기의 여파로, 2011년 3월 시리아 수니파들이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여 대규모 봉기하고, 아사드 정부가 강경진압하면서 시리아 내전으로 촉발됨.
-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전에 불개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으나, △헤즈볼라로의 무기이전, △이스라엘 접경지역에 대이스라엘 공격용 전초기지 건설, △공격을 통한 이스라엘 주권 침해를 금지선으로 설정하고 이 금지선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할시 러시아와의 조율을 통해 대시리아 공습을 실시하고 있는 바, 2015년 9월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 이후 2019년 6월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대시리아 공습은 200여 차례 이상 실시된 것으로 알려짐.
- 2021년 5월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당시 시리아 방향에서 로켓이 발사되고 이후 드론, 미사일도 발사되어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등 긴장 고조 여지는 남아있음. 2021년 9월 라피드 외교장관은 시리아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10월에는 베넷 총리도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스라엘은 시리아 관련 안보위협을 감소하고자 러시아와의 공동 대응협력을 공고히 유지하는 노력 경주 중

나. 이스라엘과 레바논

- 남부 레바논 거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테러행위에 대응, 1982년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 지역을 점령(제1차 레바논 전쟁)한 이래,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게릴라와 이스라엘간의 총·포격전이 계속되어 옴.
-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리아 측의 보장을 전제로 레바논과의 포괄적 합의를 추진해 왔으며 레바논은 유엔 안보리 결의 425호에 따라 즉각 철군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스라엘 바락 총리는 선거당시 공약사항으로 취임 후 1년 이내 레바논 철군 입장을 표명함.

- 친이스라엘계 민병대인 남부 레바논군(SLA)이 급격히 와해되자 이스라엘은 계획보다 앞당겨 2000년 5월 전격 철군을 단행함.
- 2004년 10월 레바논 하리리 총리의 암살 배후에 시리아가 있다는 의혹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되면서 미국 등의 시리아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었으며, 시리아는 2005년 4월 30여년 만에 레바논에서 완전 철수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559호(2004년 9월) 상의 외국인 철수가 이루어짐.
- 2006년 7월 남부레바논 지역을 실질적으로 장악중인 헤즈볼라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군 부대를 공격, 병사 2명을 납치해 가자 이스라엘은 34여일간에 걸친 대대적인 공습 및 지상전을 벌여 헤즈볼라 근거지뿐만 아니라 레바논 기간시설(공항, 교량 등)에 까지 큰 타격을 입힘(제2차 레바논 전쟁).
 - 유엔안보리 결의 1701호가 채택되어 레바논군이 강화된 유엔 평화군 (UNIFIL)과 함께 남부레바논 지역을 실질적으로 재장악하고,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휴전 관리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스라엘은 2006년 9월 레바논에서 전면 철수
- 이스라엘측은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헤즈볼라가 안보리 결의 1701에 위반하여 무기증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향후 헤즈볼라의 무력 도발은 단지 헤즈볼라만의 책임뿐만 아니라 레바논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임.
- 그 이후 레바논 남부지역에 거점을 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공격 또는 납치시도, 이스라엘 영역내로 로켓 발사 등 도발을 간헐적으로 계속해왔으나, 이스라엘은 제한적 공습 등으로 대응하고 전면적 공격을 자제함.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여 헤즈볼라 세력이 이에 개입하면서 이스라엘-시리아 국경지역으로 전략적 관심이 옮겨짐.
-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으로부터 시리아를 거쳐 헤즈볼라로의 무기 이전 및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국경침투에 대비해 2017년 6월-2018년 9월간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경계선을 따라 6km 장벽을 완성함.

- 레바논과 헤즈볼라는 상기 국경 경계선 일부가 2000년 레바논철수 당시 유엔 승인국경에서 벗어나는 지역으로써, 레바논의 영토주권 침해라고 강력 항의하면서 작업 중인 이스라엘 병사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지속 위협을 가하는 상황
-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은 분쟁 중인 영해 경계 관련 회담을 미국과 유엔의 중재로 진행할 것에 합의함. 이는 레바논이 2020년 이스라엘과의 분쟁 지역 인근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 개시를 계획하면서 적극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스라엘측은 동 협의를 6개월 내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 반면 레바논측은 기한 제약을 두지 않는(open-ended) 협의를 주장하면서 이견이 노정되고 있으나 미국의 중재로 양측 간 합의점 도출 중임.
- 2021년 5월 이-하마스 교전 당시 레바논 북부 방향으로부터 로켓이 발사 되었으며 이스라엘군(IDF)은 아이언돔으로 요격 및 보복 공습을 감행함. IDF는 레바논 북부를 근거지로 한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했으나 헤즈볼라의 묵인 또는 협조 없이는 로켓 공격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간츠 국방장관, 코하비 IDF 총참모장 등은 레바논이 최근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부 붕괴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바 그 여파가 이스라엘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에 따라 대레바논 인도적 지원도 이스라엘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바 헤즈볼라의 군사안보적 위협은 물론 레바논의 정치적 위기상황도 이스라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다자간 협상

- 다자간 협상은 중동 국가들 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신뢰구축방안으로 기획 되어, 1992년 1월 모스크바에서 36개국과 국제조직이 참여하여 회의를 개최함. 5개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환경, 군축과 안보, 수자원, 난민, 경제 개발을 논의함.

- 운영위원회는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하에 주요국 대표들로 구성되어 다자간 회담을 조정함. 그러나 인티파다 발생 이후 다자간 회담의 대부분은 중지된 상태임.
- 2002년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귀환권 해결,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과 아랍 전체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우디 평화안(Arab Peace Initiative)이 제안되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테러 등으로 퇴색되었고 지금까지 본격 협의 되지 못함.

VIII

대외 관계

1. 아랍과의 관계
2. 미국과의 관계
3. 러시아와의 관계
4. 유럽과의 관계
5. 중남미와의 관계
6. 아시아와의 관계
7. 아프리카와의 관계

1. 아랍과의 관계

가. 이스라엘과 이집트

- 1977년 당시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수상의 초청에 응하여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방문함.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되어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및 이스라엘-인근국간 평화를 위한 기본안이 마련됨. 캠프데이비드 협정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가자지구와 유대, 사마리아 지역(요르단강 서안)내에 팔레스타인의 단계적인 잠정 자치를 규정함. 사다트 대통령과 베긴 수상은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1979년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5차례의 전쟁을 비롯한 30년간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음.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는 전쟁, 위협행위 및 폭력을 종식하고 외교/경제/문화 관계를 수립하며 무역장벽을 없애고 시나이반도에서 이스라엘이 철수(1982년 완료)함으로써 이루어짐.
-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후 이집트는 다른 아랍 국가들이 대사관을 철수하는 등 배척을 당했으나, 대부분은 관계를 정상화하고 카이로에 다수 아랍 국가들이 대사관을 재개설함. 아랍연맹의 본부도 카이로에서 튀니지로 이전하였다가 1980년대 초에 다시 카이로로 옮겨옴.
- 이집트는 중동 지역 내 강자로서의 이미지 견지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팔 평화 과정의 중재자 역할을 시도하여 왔으며, 이스라엘의 가자 철수

- (2005.8) 이후 이집트/가자간 국경 통제관련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음.
- 2011년 초 시민봉기로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하고 2012년 6월-2013년 7월간 무슬림 형제단에 세력기반을 둔 모르시 정부가 집권하면서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상 폐기 또는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주이스라엘 이집트 대사 소환 후 대사 부재가 지속되는 등 양국 관계가 악화됨.
 - 2013년 7월 군부 쿠데타로 알시시가 정권을 잡고, 2014년 가자사태로 이-팔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집트는 이-팔 양측의 휴전협상 중재를 자처, 약 2개월간 군사적 충돌상태에 있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간 전투상황의 종료에 기여함.
 - 동 협상과정에서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등 이집트 수뇌부와 네탄야후 총리 등 이스라엘 수뇌부 간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관계가 안보분야에서 급진전되는 계기
 - 2015년 이래 시나이 북부지역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안보협력 필요성과 파타-하마스 간 정파 화해 및 2021년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등에 있어 이집트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등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전통적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2017년 8월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제안으로 파타-하마스 간 정파 화해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집트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하마스-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시 이집트 정보부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역할 수행 중
 - 2021년 5월 11일간의 이-하마스 교전 이후 이집트는 양측 간 공고한 교전중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재 활동을 적극 전개 중
 - 베넷-라피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스라엘 총리-이집트 대통령 통화(2021년 6월), △이집트 정보국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방문(2021년 8월) 등 양국은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021년 7월 새로 취임한 헤르초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공식 전화통화를 통해 이-하마스 중재 및 역대 평화 증진 노력에 사의 표명
- 양국은 또한 2021년 9월 중순 베넷 총리의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조율 중

나. 이스라엘과 요르단

- 이스라엘과 요르단간의 평화조약은 1994년 10월에 서명되었는데, 이보다 3개월 전 후세인 요르단 국왕과 이츠하크 라빈 수상은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간의 전쟁 상태 종식을 선언함.



- 1948년 이후 다른 아랍국가와 연대하여 이스라엘에 적대적 태도를 보여 오던 요르단 정부는 1970년 요르단 내 PLO와 ‘검은 9월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르단을 측면 지원한 이스라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
- 이스라엘 독립이후 평화조약 체결 시까지 46년간 표면적으로는 전시 상태를 유지했지만 양국은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 비밀접촉을 유지
- 1991년의 마드리드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대화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1994년 평화조약으로 그 결실을 성취
- 평화조약 체결로 양국 간에는 전쟁 종식, 수자원의 배분, 국민들 간 통행의 자유 보장, 요르단 계곡 개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게 됨. 1949년의 휴전선이 영국 위임통치기의 국경도 참조하여 양국 간 국경선이 됨. 1995년 요르단 국회는 아랍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결정함. 양국 간에는 경제, 과학, 문화 분야에서 다수의 조약이 체결되어 양국 간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관계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

- 후세인 국왕 사후에도 압둘라 국왕은 이스라엘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로서도 요르단과의 관계를 협력관계의 모델로 삼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양국관계가 긴장과 회복을 연이어 겪고 있음.
 - △2014년 양국 국경에서 발생한 요르단 판사 사망 사건 및 △2017년 주 요르단 이스라엘 대사관 보안요원의 요르단인 살해 사건이 발생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2018년 1월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여 주요요르단 이스라엘 대사관 업무가 재개
 - 2018년 10월 요르단 정부의 이스라엘-요르단 평화조약 부속서 폐기 일방적 선언 등으로 갈등이 표면화
 - 2020년 10월 요르단-이스라엘 영공통과 협정이 체결되고, 2020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는 등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
- 2021년 6월 베넷-라피드 정부 출범 이후 △헤르초그 대통령의 비공개 암만 방문 및 요르단 후세인 국왕 회동, △양국 외교장관 회동도 성사됨. 아울러 이스라엘이 요르단의 중대 현안 중 하나인 용수부족 해소를 위한 물 공급 확대 등 외교적 성의를 보이면서 양국관계는 점차 적극적인 협력 기조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

다. 이스라엘과 걸프연안 국가

- 이스라엘 건국 이후 아랍-이스라엘 전쟁에 걸프연안 아랍국가들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으나, 범 아랍국가로서 가지는 반이스라엘 정서로 오랫동안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스라엘-걸프연안 국가 간 관계는 개선과 경색을 지속해옴.
 - 1991년 마드리드 회의 등으로 중동 내 평화가 진전되자 이스라엘은 1996년 오만 및 카타르에 무역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 같은 해 오만도 텔아비브에 사무소 개설함.

- 2000년 10월 제2차 인티파다로 인한 반이스라엘 정서로 주요만 이스라엘 무역대표사무소는 운영을 중지함. 주카타르 이스라엘 무역대표사무소는 1996년 개소 후 2000년까지 운영되다가 제2차 인티파다로 폐쇄된 후 2005년 재개되었으나 2009년 가자 전쟁으로 재차 폐쇄
- 2010년 이후 시리아 내전의 장기화로 인한 이란의 시리아 및 이라크 내전 개입 및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타결 등으로 가시화된 이란의 중동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걸프연안 국가들 간 관계 정상화가 가속화된다는 평가도 대두
- 2020년 8월 13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는 3국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중재 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이어 2020년 9월 13일 이스라엘은 바레인과도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2020년 9월 15일 이-미-아랍에미리트-바레인 4국은 미국 백악관에서 아브라함 협정(이-아랍에미리트)과 이-바 관계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함.
 - 아브라함 협정 서명 후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은 △상호 공관 설치 및 대사 임명, △직항 개설 및 비자 면제, △무역, 재무, 통신, 투자, 과학기술, 관광 등 다수 분야의 협력 증진 등 다양한 관계정상화 후속 조치 시행 중
 -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 7월 1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공관을 개관 하였고, 이스라엘도 2021년 1월 24일 아부다비에 공관을 개관함. 바레인은 2021년 8월 31일 첫 대사가 이스라엘에 부임
 - 특히 이스라엘-미국-아랍에미리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내 △무역 활성화, △농업 생산성 개선, △전략 인프라 사업 추진 등을 위해 30억불 규모의 아브라함 기금을 공동 조성키로 합의
- 미국의 중재 하에 이스라엘-아랍 관계정상화를 통해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내 대이란 공조 및 경제협력 확대, △역내 정치 및 경제적 입지 강화,

△비공식적인 정보기관, 민간부문 협력에 집중되던 양국 교류를 공식적인 외교관계로 격상, △군사부문 교류 및 경제위기 타개 등 다양한 이해가 상호 맞물려 성사된 것으로 해석함.

- 특히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위상 및 역할이 격상되었고,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조를 견인할 역내 주요국으로 부상했으며 재생에너지, 농업 및 수자원 개발 분야 등에서 매력 있는 협력동반자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함.

라. 이란과의 긴장 고조

- 20세기 초 팔레비 왕조 시기 이란은 터키에 이어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국가로 승인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으나, 1979년 이슬람 혁명 발발 직후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등 반이스라엘 외교정책 노선을 채택함.
 - 이스라엘은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및 중동 역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자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란이 헤즈볼라, 하마스 등 이스라엘 주변 과격 이슬람 세력의 대부로서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제기
-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및 로하니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여러 차례 표출함.
 -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스라엘은 지역 내 악성 종양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스라엘이 지역평화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공개적으로 발언
- 네탄야후 총리는 매년 유엔총회 연설 및 여타 국가와의 정상회담 계기 이란의 역내 위협과 이란핵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옴.
 - 2018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보기관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이란 비밀 핵개발 관련사항 브리핑 시행, 2018년 9월 UN 총회에서 이란 테헤란에 비밀 원자로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공표

-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2018년 이란핵합의(JCPOA) 탈퇴 및 대이란 제재 복원 및 강화했으며 이스라엘은 이를 강력히 지지, 반이란 전선을 구축함.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JCPOA 복원을 위해 이란, E3(영, 프, 독), 러시아 등과 비엔나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수정 없는 JCPOA 복원에 대해 이스라엘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지속 표명하고 있음.
- 이스라엘은 이란의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자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헤즈볼라로의 무기이전, △이스라엘 접경지역에 대이스라엘 공격용 군사시설 건설, △공격을 통한 이스라엘 주권 침해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공습을 통해 이러한 이란의 도발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지속함.
 - 2017년 이래 이스라엘은 대시리아 공습을 200여회 이상 실시한바, 2018년 2월 이란 무인기의 이스라엘 국경 월경 및 2018년 5월 골란고원 내 IDF 초소를 향해 20여발의 로켓 발사한데 대해 시리아내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 실시
 - 이스라엘 북부는 레바논 및 시리아와 접경해 있고 남부는 가자지구와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미-이란 간 갈등이 언제든 이스라엘 안보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가능성 상존
- 이스라엘과 이란이 2020년과 2021년 연이어 상대국과 연관된 선박을 상호 공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2021년 8월 라이시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이스라엘은 동 대통령의 강경보수 성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이란의 핵무장 역량 보유 가능성과 핵개발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2. 미국과의 관계

- 미국은 이스라엘의 독립선언 7분후 조기에 국가 승인을 한 이후 이스라엘의 안전보장을 미국의 대중동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아왔음. 미국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아랍국간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미국-이스라엘 관계의 초점이며, 미국은 안보리 결의안 242호와 338호를 근간으로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는데 진력해 옴.
-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전통적으로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음. 미국은 매년 이스라엘에 군사원조와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측 요청에 따라 1999년부터 경제원조액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군사원조액은 부분적으로 증액하고 있음.
 - 2003년 미국은 이스라엘에 3년간 90억불을 원조키로 결정하였으며, 원조 명목은 이라크전에 대비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보전
 - 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8년부터 향후 10년간 300억불 규모의 군사지원금을 제공키로 하였고, 2009.1월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도 동 지원결정 준수
 - 2016년 9월 미국은 종전보다 80억불 증액된 총 380억불의 군사원조를 향후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대이스라엘 군사원조(2019년-2028년) 양해각서를 체결, 매년 33억불 규모의 군사원조와 미사일 방어시스템 협력사업에 5억불을 제공 중
- 특히,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전략협력협정(1983.11), SDI 연구 개발 계획 참여(1986.5), 방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1987.2), 애로우 요격미사일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1988.6), 미사일방어 전략협력협정(1998.10) 등에 의거하여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미국은 이스라엘의 최대 교역국임. 양국은 1985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으며 1996년 농산물교역협정을 체결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되었던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폐하였음. 특히 이-미 FTA 체결 이후 양국 교역규모는 약 8배 증대함.
 - 2019년 기준 양국 간 상품 교역규모는 매년 500억 달러 수준이며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경제개발 회의(Joint Economic Development Group)를 개최
 - 미국은 민항기 부품, 통신장비,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주변기기를 수출,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 약품, 통신부품, 의약기기, 전자기기, 면제품 수출
 - 양국은 다수의 공동기금, 협력재단을 통해 과학, 문화,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
-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중동평화 달성을 위해 이-팔 평화진전이 필요하며,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포함, 팔레스타인 지역 내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모두 동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바 네탄야후 총리와 공개적으로 대립함.
 - P5+1/이란 간 핵협상 및 이스라엘 정착촌 등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네탄야후 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양국 간 갈등 발생
 - 2015년 3월 네탄야후 총리의 미 의회 상·하의원 합동연설이 사전에 백악관과 조율 없이 추진됨으로써 이스라엘-미국 양국(정상)간 갈등이 노정되고 양국(정상)간 긴장이 표출
 - 2016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만료 직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요지의 유엔 안보리 결의(2334호) 투표 시 미국의 기권으로 동 결의가 통과
- 이러한 미-이스라엘 양국 관계는 2017년 1월 친이스라엘 성향의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으로 양국관계는 전환기를 맞게 됨. △2017년 12월 예루

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 △2018년 5월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2018년 5월 이란핵합의(JCPOA) 탈퇴 및 △2018년 11월 대이란 제재 복원, △2019년 3월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등 잇따른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 왔음.

- 2020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예루살렘을 분리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 △기존 정착촌의 이스라엘 영토 편입, △동예루살렘 일부를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요지로 하는 중동평화구상을 발표
 - 아울러 미국의 적극 중재로 이스라엘-아랍국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진 바,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2020.8.13.), 바레인(2020.9.11.), 수단(2020.10.23.), 모로코(2020.12.10.)와 관계정상화 발표
 - 2020년 11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고위급 인사 최초로 이스라엘 정착촌과 골란고원을 방문, 동 정착촌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름을 딴 와인 출시
-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친이스라엘 기조를 유지하며 △이스라엘-아랍권 관계정상화 확대 증진,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등 일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유지
- 다만 △2국가 해법 지지입장과 이-팔 대화 필요성 강조, △대팔레스타인 지원 재개(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UNRWA 예산 복원 등),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워싱턴 사무소 및 대팔 영사관 재개 등 기존 트럼프 행정부와 상반된 정책을 추진 중이며, JCPOA 복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2021년 6월 출범한 베넷-라피드 정부의 베넷 총리는 2021년 8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함.
- 베넷 총리는 적극적이고 유화적인 대미 메시지를 적극 발산하고 이란핵 문제, 이-팔 문제, 코로나19 대응공조 등에 대해 미국과 폭넓게 협의하여 양국 간 공통 인식을 확대한 것으로 자평
 - 다만 동 총리는 미국의 예루살렘 대팔 영사관 재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이-팔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하는 등 양국 간

이견도 확인된 바, 이러한 이견이 양국관계 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의도도 노정

3. 러시아와의 관계

- 제3차 중동전쟁(1967년 6월)을 계기로 한 소련의 일방적 단교조치 이후에도 양국은 유엔, 제네바 등 국제회의에서의 비공식 외교접촉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및 의회·정당 대표단의 상호방문 등 비정부간 교류를 지속하여 왔음.
- 양국은 1986년 4월 영사문제 협의를 위한 외교접촉을 계기로 관계가 증진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9월 교역사무소 교환 설치, 1991년 1월 총영사관 설치에 이어 1991년 10월 외교관계를 재개함. 특히, 구소련의 붕괴 이후 1989년~2006년간 구소련계 유대인 이민자 약 98만명이 대량 유입됨으로써 관계가 더욱 확대됨.
-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상당수는 구소련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방문자의 상당수(17%)가 러시아인인 점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러시아 양국간 교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양국관계의 기본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어는 이스라엘 내에서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에 이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 회의에서 유엔, 미국, EU와 함께 Quarter을 구성한 이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 2015.9월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 이후 시리아의 제공권을 러시아가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De-confliction 채널 유지를 통해 이스라엘 자국 안보 수호를 위한 대시리아 공습을 지난 수년간 수백여 차례 지속해 오고 있음.
 - 러시아로서는 시리아, 이란으로 수출된 자국산 무기가 헤즈볼라 등 무장 세력의 손에 넘어간 것과 관련, 이스라엘 측의 비판을 받고 있으나 중동 역내 및 시리아내 러시아의 이권 등을 위해 무기 판매 정책은 고수한다는 입장
- 2018년 9월 이스라엘 전투기가 대시리아 공습에 대한 시리아의 지대공 미사일에 러시아 공군 정찰기가 피격당하는 사건(러시아군 15명 사망)이 발생하자, 러시아가 동 사건이 이스라엘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한때 첨화되었으나 다시 봉합됨.
- 2021년 6월 베넷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간 협력은 증진되고 있는바, 9월 초에는 라피드 외교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한바 양국 간 최대 현안은 시리아 문제인 것으로 알려짐.

4. 유럽과의 관계

- 서유럽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오랜 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EU와는 자유무역협정(1975), 준회원협정(Association Agreement, 1995)을 통해 교역 및 관광 교류를 확대해 오고 있음. 2020년 기준 EU는 이스라엘의 제1위 교역대상임.

- 구소련 붕괴 이후 CIS 제국과 동구 제국의 개혁, 개방정책 추진으로 유대인 이주 제한 철폐, 대이스라엘 외교관계 재개, 관광 및 과학기술교류 확대 등 이스라엘과 동유럽 관계가 점차 확대 발전되고 있음.
- 2009년 1월 종료된 가자 군사작전(Cast Lead) 이후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한 유럽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7-8월간 가자 군사작전(Protective edge)이 재차 실시됨에 따라 유럽 내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 비등으로 스웨덴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등 반 이스라엘 정서가 확산되는 모습임.
- 유럽연합은 이-팔 관련 이슈(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이스라엘의 대가자 공격 행위 중지 및 관련 조사 요청, 점령지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등) 발생 시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 2014년 12월 EU의회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결의(비구속적)를 통과시켰으며, EU는 2015년 11월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만들어져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별도의 상표를 부착하는 내용의 지침을 채택
 - 특히, 유럽연합은 인권, 교육, 역사 등의 국제기구 표결에서 反이스라엘 색채를 분명히 하며 두 국가 해결안지지 및 이스라엘 정착촌 반대에 대한 입장을 선명하게 부각
- 다만, 2021년 6월 베넷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7월 라피드 외교장관이 2008년 이래 처음으로 EU 외교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신정부 출범 후 이스라엘-EU 관계가 호전되고 있음.
 - EU 국가 중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대사관 분관을 예루살렘에 설치

5. 중남미와의 관계

- 이스라엘은 국제적 고립 탈피 전략의 일환으로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보여 온 중남미 지역에 대해 경제 진출을 강화하여 자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중남미와의 관계 증진에 노력중임.
- 이스라엘은 중남미 33개 국가 중 쿠바를 제외한 32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등 동 지역으로부터도 유대인들이 상당수 이스라엘로 유입된 바 있음.
 - 네탄야후 정부는 이란 및 헤즈볼라가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삼국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마약밀매, 무기 위조, 자금 세탁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992년 이스라엘 대사관 테러 및 1994년 이스라엘-아르헨티나 친선협회(AMIA) 건물 테러의 책임도 이란과 헤즈볼라에게 있다고 주장
- 중남미 국가의 다수가 비동맹 그룹(NAM) 및 77그룹 소속인 관계로 기본적으로 친팔레스타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고, 다수의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승인하고 있어 국제무대에서 이-팔 이슈 관련 표결 시 이스라엘은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중남미와의 관계를 확대해옴.
 - △멕시코와 FTA 체결(2000년), △MERCOSUR와 프레임 워크 체결(2005년), △태평양동맹 옵저버로 참여(2014년) 등
- 2018년 5월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후 과테말라(2018년 5월), 온두라스(2021년 6월)도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개관함.

6. 아시아와의 관계

-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중국, 인도 등의 지지를 얻어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경제력이 있는 국가와 경제·통상협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 아시아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기본 입장임.
- 우리나라와는 196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북한과는 외교관계가 없음. 1992년에 중국 및 인도, 1993년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2000년 5월 스리랑카와 복교하였음.
- 특히, 최근 유럽과 미국의 경제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바, 이스라엘은 2015년 3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AIIB에 참여하여 아시아시장에 적극 진출하고자 함.
 - 중국(2016년 3월) 및 베트남과 FTA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교환 지지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우리와의 관계 증진에도 많은 관심 표현
- 이스라엘은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경제 외 정치, 외교적으로는 갈등요인이 존재
- 중국 부총리의 방이, △2018년 10월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이 등 이스라엘-중국 간 정치·경제적 관계는 더욱 진전되었으며 중국은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및 주요 인프라 산업에 적극 투자
 - 한편 미국은 △교통, 통신 등 민감 인프라 분야에서의 중국산 시스템 사용 금지 요청,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 관련 중국계 기업(Hutchison) 참여 우려 등 이-중 경협 확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견 노정

- 중국은 2021년 5월 이-하마스 교전 당시 국제무대에서 팔레스타인의 인명피해, 이스라엘의 관련 군사행동 규탄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지지하는 등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입장을 표명한바 이-중 경제교류 외 정치 외교적 갈등 요인도 상존

7. 아프리카와의 관계

- 가나 등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제3, 4차 중동 전쟁(1967년 6월 및 1973년 10월) 및 석유파동 이후 아랍측 입장에 동조하는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집단 단교조치(레소토, 말라위, 스와질랜드 제외)를 당하는 등 외교적 고립이 심화된 바 있음.
-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몰락, 걸프전, 중동평화회담 진행 등으로 아랍 측의 대이스라엘 고립화 정책이 퇴색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외교 망이 확대되고 있음. 중동평화회담 진행 이후 잠비아(1991년 12월), 나이지리아(1992년 5월), 베냉(1992년 7월), 감비아(1992년 9월), 콩고(1991년 7월), 남수단(2011년 7월), 수단(2020년 10월) 등 30개국과 수교 또는 복교하여 현재 46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함.
- 1994년 이후 북아프리카의 아랍 국가인 모로코, 모리타니아, 튀니지는 다른 아랍 국가처럼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에 부침이 있었으나,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정상화에 힘입어 모로코도 2020년 12월 국교를 정상화함.
 - 1994년 11월 모로코의 수도인 라바트에 이스라엘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4개월 후 모로코는 이스라엘에 사무소를 개설함. 모리타니아는 1995년 11월 바르셀로나 회의에서 스페인 외무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협정을 맺어 스페인 대사관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함. 1996년 5월 모리타니아는 텔아비브에 연락사무소를 열었고, 튀니지도 1996년 5월 텔아비브에 연락사무소 설치

- 모로코와 튀니지는 2000년 10월 제2차 인티파다를 계기로 이스라엘 연락사무소를 폐쇄조치함. 모리타니아는 2008년 12월 1차 가자 분쟁이 발발함에 따라 2009년 3월 주모리타니아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 조치
- 이스라엘은 국제무대에서의 지지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주한 유대인 (세파르딤)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구성상 국내적 요인에 의한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개선 노력 역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한편, 2020년 2월 네탄야후 총리는 알 부르한 수단 과도통치위원장과 회동하며 이스라엘-수단의 관계정상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개시함. 특히 아브라함 협정(2020년 9월 15일) 이후 이스라엘-아랍 관계정상화 흐름이 확산되면서 2020년 10월 23일 이스라엘, 미국, 수단은 3국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수단 관계정상화 합의를 발표함.
 - 2014년 수단-사우디 및 UAE 간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수단-이란 관계가 악화, 이스라엘-수단은 막후 대화를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미국 및 EU국가의 대수단 원조를 위해 로비활동도 전개
 - 수단은 급격한 경제위기 때문에 부채탕감 및 외국인투자자가 긴급해짐. 2019년 테러지원 혐의를 받던 바쉬르 전 수단 대통령의 퇴출 후 미국에 테러지원국 명단제외를 지속 요청해온바, 이러한 연장선에서 테러희생자 배상문제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정상화 논의가 급진전
- 또한 2020년 12월 10일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에 이어 모로코와도 관계정상화를 발표하면서 대사관 상호 개관 및 직항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도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21년 7월 25일 이스라엘-모로코 직항 개설, 8월 12일 이스라엘은 라바트에 연락사무소를 공식 개관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

I. 외교 관계

II. 주요 인사교류 현황

III. 통상·투자 현황 및 구조

IV. 조약 체결 현황

V. 영사·재외국민·동포 관계

VI. 북한과의 관계

I

외교 관계

- 1962. 4.10 외교관계 수립
- 1964. 8. 주한 이스라엘 상주 대사관 개설
(1969년 9월 호람 초대 대사 부임)
- 1969. 4. 유재홍 주이스라엘 대사(로마 상주) 신임장 제정
- 1978. 2. 이스라엘 정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 결정 통보
- 1992. 1. 주한 이스라엘 상주대사관(대사대리급) 재개
- 1992. 11. 나임 주한 이스라엘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93. 12. 주이스라엘 대사관 개설
(1994년 3월 박동순 초대 상주대사 부임)
- 1995. 9. 아라지 주한 이스라엘 상주 대사 신임장 제정
- 1997. 4. 정의용 제2대 대사 신임장 제정
- 1998. 5. 이창호 제3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0. 8. 이태식 제4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1. 10. 우지 마노르 Manor 주한 이스라엘 상주 대사 신임장 제정
- 2002. 4. 유명환 제5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4. 5. 박경택 제6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5. 8. 이갈 카스피 주한 이스라엘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06. 5. 신각수 제7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8. 12. 마영삼 제8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09. 10. 투비아 이스라엘리 주한 이스라엘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11. 12. 김일수 제9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13. 11. 우리 구트만 주한 이스라엘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14. 12. 이건설 제10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16. 11. 차임 고센 주한 이스라엘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18. 3. 최용환 제11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19. 11. 서동구 제12대 대사 신임장 제정
- 2021. 2.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II

주요 인사교류 현황

1. 이스라엘 방문
2. 방한
3. 문화교류 현황

1. 이스라엘 방문

- 1961. 7. 친선사절단 (단장: 김용식 주영 대사)
- 1964. 5. 군사사절단 (단장: 강기천 해군 소장)
- 1965. 3. 장경순 국회부의장
- 1966. 1. 전예용 건설장관
- 1968. 8. 조시형 농림장관
- 1993. 9. 김시중 과기처장관
- 1993. 11. 신기복 외무부 제1차관보 (제1차 한·이스라엘 정책협의회)
- 1995. 8. 이양호 국방장관
- 1995. 9. 윤용남 육군참모총장
- 1995. 11. 이흥구 국무총리 (라빈총리 장례식 조문사절)
- 1995. 11. 제3차 정책협의회 (수석대표: 이중동국장)
- 1996. 4. 박익순 비상기획위원장
- 1996. 9. 강만수 관세청장
- 1996. 10. 안병영 교육장관
- 1996. 12. 제1차 문화공동위 (수석대표: 성정경 문화협력국장)

- 1997. 4. 한승주 전 외무장관
- 1997. 10. 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 (제5차 한·이스라엘 정책협의회)
- 1997. 11. 이효계 농림부 장관
- 1997. 11. 권오기 통일 부총리
- 1998. 9. 최기선 인천시장
- 1998. 11. 유종하 전 외무장관
- 1998. 11. 최호중 전 통일부총리 (제1차 한·이 포럼 수석대표)
- 1998. 11. 박태영 산자부 장관 (중동경제협력사절단)
- 1999. 1. 김봉호 국회부의장 일행 (안동선, 박철언 의원)
- 1999. 1. 국회대표단 (정희경, 홍문중 의원)
- 1999. 2. 김종필 국무총리
- 1999. 6. 국회대표단 (단장 : 김인영 의원)
- 1999. 7. 한·이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단장 : 서정화의원)
- 1999. 12. 오형겸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제3차 한·이 과기공동위)
- 1999. 12. 이호진 외교부 정책기획관(제2차 한·이 정책기획협의회)
- 2000. 5. 박준규 국회의장 (비공식)
- 2000. 5. 박익수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위원장

- 2000. 5. 최기선 인천 시장
- 2000. 9.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 2001. 3. 유종하 전외교통상부 장관
- 2001. 3. 이영덕 전총리
- 2002. 3. 김병오 국회사무총장
- 2002. 8. 한·이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단장 : 박희태의원)
- 2002. 10.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제2차 한·이 경제공동위)
- 2003. 11. 윤광웅 비상기획위원장
- 2003. 12. 이흥구 전총리
- 2004. 9. 국방부 방문단 (단장: 고경윤 공군 준장) (국방협력)
- 2005. 3. 오준 국제기구정책관 (MTCR 의장단 outreach 방문)
- 2005. 6. 반기문 외교통상장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방문)
- 2005. 7. 국회 정보위 의원단 방문 (단장 신기남 의원 및 임종인, 정형근, 조성태, 권영세, 권철현 의원)
- 2005. 11.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방문 (관광협정 서명 등)
- 2005. 12. 안동만 국방과학연구원장 (국방협력)
- 2006. 1. 김진표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방문
- 2006. 3. 정달호 재외동포영사담당 대사 (아국 피랍인 석방 교섭)

- 2006. 12. 마영삼 외교부 아중동국장 (제7차 한-이스라엘 정책협의회)
- 2006. 12. 한-이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박희태, 이재창, 조일현, 윤원호, 주승용, 안명옥 의원)
- 2007. 1. 이선희 방위사업청장
- 2007. 2. 국회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특위
- 2007. 7.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
- 2007. 11.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제6차 과학기술공동위)
- 2007. 12.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 2008. 6.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
- 2008. 8. 신각수 외교부 제2차관
- 2008. 11. 이만의 환경부 장관
- 2009. 3. 허용석 관세청장
- 2009. 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대표단 (단장 : 이병석 위원장)
- 2009. 4.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신재생에너지 협력)
- 2009. 5.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한-이 경제공동위 대표 자격)
- 2009. 5.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표단 (단장 : 박진 위원장)
- 2009. 11. 이운 정책기획국장 (제6차 정책기획협의회)

- 2009. 12. 미래기획위원회 대표단(단장 : 장영철 위원)
- 2010. 3. 신재생에너지 민·관 합동 조사단 (단장 : 김종용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 2010. 3. 국회 정보위원회 대표단 (단장: 정진섭 위원장)
- 2010. 5. 변무근 방사청장(방사군수 공동위)
- 2010. 8.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단장: 원유철 위원장)
- 2010. 9. 국회 예결특위 대표단 (단장: 서갑원 의원)
- 2010. 11.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 2010. 12. 한국 종교인 지도자 협의회 대표단
- 2011. 1. 양승태 대법관
- 2011. 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표단 (단장: 남경필 위원장)
- 2011. 3. 한-이스라엘 의원친선 대표단 (단장: 이병석 의원)
- 2011. 3. 주한 명예총영사단 (단장: 조해영 주한명예영사단장)
- 2011. 5. 송용엽 아중동국장 (제9차 한-이스라엘 정책협의회)
- 2011. 6. 문하영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 2011. 7. 국회 정무위원회 대표단 (단장: 허태열 위원장)
- 2011. 7.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대표단 (단장: 김영환 위원장)
- 2011. 12.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 2012. 4. 국회환경노동위 대표단 (단장: 김성순 위원장)
- 2012. 10 이명박 대통령 특사 (김성태 의원)
- 2013. 1 안경률 녹색성장협력대사
- 2013. 11. 김규현 외교부 1차관
- 2014. 1. 국회 정보위 대표단 (서상기 위원장)
- 2014. 1. 국정원개혁특위 (정세균 위원장)
- 2014. 3. 보건복지위 방문단 (오제세 위원장)
- 2014. 5. 산업자원부 민관대표단
- 2014. 12. 윤병세 외교부 장관
- 2015. 2. 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 대표단
- 2015. 3.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2015. 3. 김낙희 관세청장
- 2015. 4.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2015. 11. 유대종 국제기구국장
- 2015. 6. 제6차 한-이 경제공동위대표단 (단장: 이태호 경제조정관)
- 2016. 5.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단장: 한기호 의원)
- 2016. 5. 우테희 산업부 2차관

- 2016. 8. 권희석 아중동국장
- 2016. 9. 페레스 前 이스라엘 대통령 서거 정부조문사절단
(단장: 홍문중 의원)
- 2016. 11. 최동준 재외동포재단 이사
- 2017. 1. 한-이 군축비확산 협의회 대표단
- 2017. 3.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
- 2017. 3. 심재권 외통위원장 및 정양석 의원
- 2017. 4. 정만기 산업부 1차관
- 2017. 5.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 2017. 7. 한-이스라엘 의원친선협회 (단장: 강길부 의원)
- 2017. 11. 국민의당 대표단 (단장: 안철수 의원)
- 2017. 11. 제2차 한-이 정책라운드테이블 (백지아 외교안보연구소장)
- 2017. 11.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 2018. 3.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
- 2018. 3. 이종후 국회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 2018. 1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2018. 12. 문희상 국회의장
- 2019. 3. 최재형 감사원장

- 2019. 3.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안규백 국방위원장)
- 2019. 4. 제9차 한-이스라엘 과기공동위 대표단 (단장: 송경희 과기정통부 국장)
- 2019. 5. 박원순 서울시장
- 2019. 5.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장
- 2019. 8.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2. 방 한

- 1967. 6. Itzhak Rabin 군총참모장
- 1968. 3. 이스라엘 외무부 사절단
- 1971. 5. Gideon Rafael 외무차관
- 1971. 6. Dinstein 재무차관
- 1972. 10. 노동연맹 사무차장
- 1972. 11. Sheerson 외무부 아주국장
- 1975. 11. Avidar 해외감사실장
- 1976. 5. Yehuda Horam 외무부 아세아·대양주 국장
- 1979. 1. Yitzhak Shamir 국회의장

- 1979. 11. 박정희 대통령 서거 조문특사(주일 이스라엘 대사)
- 1982. 4. Yaacov Shilo 수석 감사관
- 1983. 7. David 군총참모장
- 1983. 11. 이스라엘 상공인단 (단장: 상공부 아주국장)
- 1985. 10. Modi 재무장관 (IMF 총회 참석차)
- 1987. 5. Tamir 외무차관
- 1988. 5. 이스라엘 경제사절단
- 1989. 11. 이스라엘 경제사절단
- 1990. 1. Merhav 이스라엘 외무부 사무차관
- 1991. 10. Yegar 이스라엘 외무부 아주·대양주·아프리카 국장
- 1994. 6. Baram 이스라엘 관광장관
- 1994. 11. Aloni 이스라엘 과학·예술장관
- 1994. 12. Rabin 총리
- 1996. 1. Shohat 재무장관
- 1996. 11. 제4차 정책협의회 (수석대표 : 아·태차관보)
- 1997. 3. Ben-Porat 감사원장
- 1997. 3. Peres 전 총리 (삼성초청 비공식 방문)

- 1997. 4. Dan Tichon 국회의장 (IPU 총회 참석차)
- 1997. 4. Sharanasky 산업통상장관
- 1997. 8. Netanyahu 총리
- 1998. 5. Eitan 농업 및 환경장관
- 1999. 2. 히브리대 Ben-Ami Shillony 교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회의 참석차)
- 1999. 3. Tichon 국회의장
- 1999. 3. Arie Shomer 대통령 비서실장
- 1999. 11. Yehuda Wilk 경찰청장(제68차 인터폴 서울총회 참석차)
- 1999. 12. Dan Kyras 외무부 문화국 차관보 (제2차 한·이 문화공동위)
- 2000. 11. Gabay 외무부 아·태 차관보
- 2001. 1. Danny Yatom 총리 정치·외교 보좌관
- 2001. 1. Reuven Horesh 산업통상부 장관대리 (제1차 한·이 경제공동위)
- 2001. 3. Oded Tyrah 제조업자협의회(MAI)회장
- 2001. 6. Abshalom Bilan 의원 (국제농림어업 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 2001. 10. Eliezer Goldberg 감사원장 (제17차 세계감사원장 회의 참석차)
- 2002. 3. Yossi Gal 외교부 경제차관보

- 2002. 8. Reuven Rivlin 통신부장관
- 2003. 11. Sandberg 과학부장관
- 2003. 12. Zvi Gabay 외교부 아태차관보 (제6차 한·이스라엘 정책 협의회)
- 2005. 1. Ehud Olmert 통상산업장관 겸 부총리
- 2005. 8. Haim Katz(리쿠드), Shaul Yahalom(NRP) 의원 (제2차 국제 의원봉사연맹 회의, IPSS 참석)
- 2005. 10. Zeev Boim 국방부 부장관(Korea 에어쇼 참가)
- 2006. 5. Avi Balashnikov 통신부 차관(서울디지털포럼 참가)
- 2006. 7. Miriam Ziv 외교부 전략담당 차관보 (한·이 비확산 협의회)
- 2006. 9. Yoel Hasson 의원(카디마당), 제4차 아시아 정당대회(ICAAP) 참가
- 2006. 11. Arthur Avnon 외교부 문화·과학 차관보 (제4차 한·이 문화 공동위)
- 2007. 1. Zipi Livni 이스라엘 외교장관
- 2007. 8. Yitzhak Aharonovich 관광부 장관
- 2008. 4. Ruth Kahanoff 외교부 아태차관보 (제8차 한-이스라엘 정책 협의회)
- 2008. 7. Shir-on 외교부 공보담당 차관보

- 2008. 10. Menachem Magidor 히브리대 총장
- 2008. 12. Dani Arditi 이스라엘 NSC 의장
- 2009. 8. 이스라엘 의원 축구대표단
- 2009. 11. David Medlovic 과학기술자문관 (제7차 과학기술공동위)
- 2010. 6. Shimon Peres 대통령
- 2011. 8. Ruth Kahanoff 외교부 아태차관보
- 2011. 8. Eran Lerman 국가안보위(NSC) 부의장
- 2011. 11. Amos Yadlin 국가안보연구소 소장
- 2011. 11. Daniel Carmon 외교부 개발원조담당 차관보(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 참석)
- 2011. 12. Avi Hasson 산업통상노동부 수석과학관
- 2012. 3. Ehud Olmert 전총리
- 2012. 3. Avigdor Lieberman 외교장관
- 2012. 4. Dan Meridor 부총리
- 2012. 10. Edelstein 공공외교 및 디아스포라 장관
- 2013. 10. Elkin 외교부 차관
- 2013. 10. Olmert 前총리/Dagan 前모사드 국장
- 2013. 11. Barak 前총리

- 2014. 4. Ohad Cohen 경제부 무역실장(제5차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 대표단)
- 2014. 12. Ben-Shitrit 이스라엘 외교차관
- 2015. 5. Sofer 외교부 아태차관보
- 2016. 6. Dagan 외교안보연구소장
- 2016. 9. 제7차 한-이 경제공동위대표단 (단장 : Cohen 경제산업부 대외무역담당 차관보)
- 2016. 11. Oren 총리 외교보좌관
- 2018. 10. Olmert 전 총리 (비공식 방한)
- 2018. 10. 제3차 한-이 정책라운드테이블 (Akov 외교부 CPR 소장)
- 2018. 11. 제12차 한-이 정책협의회 (Cohen 외교부 아태차관보)
- 2019. 7. Reuven Rivlin 대통령
- 2021. 5. Gabi Ashkenazi 외교장관
- 2021. 5. Amir Peretz 경제장관

3. 문화교류 현황

이스라엘 방문

- 1996. 8. 리틀 엔젤스 무용단
- 1998. 10. 사물놀이 한울림 (단장 김덕수)
- 1999. 7. 손재현 무용단 (12차 카르미엘 국제무용제 참가)
- 2002. 2. 안동탈 전시회 (홀론시)
- 2002. 5. 국립극장 ‘우르왕’공연 (이스라엘 페스티벌 참가)
- 2006. 6. 전통 타악 연구소 사물놀이 공연
- 2005. 5. 극단 ‘점프’공연 (이스라엘 페스티벌 참가)
- 2006. 3. 예루살렘 박물관 한복전시회 개최 (디자이너 이일순)
- 2006. 3. 국립무용단 방문
- 2011. 8. 작가 신경숙 방문
- 2012. 5. 한-이 수교 50주년 기념 ‘난타’공연
- 2012. 11. 영화배우 안성기 (한국 영화제 참석)
- 2013. 3. 피아니스트 백진우 연주회
- 2014. 6. 영화감독 김지운 (텔아비브 국제학생영화제 참석)

- 2014. 6. 영화감독 박찬욱 (예루살렘 국제영화제 참석)
- 2015. 8. 이화 발레 앙상블 공연
- 2016. 7. 비보이그룹 ‘모닝 오브 더 아울’공연
- 2017. 7. 비보이그룹 ‘진조크루’공연
- 2018. 5. 금단제 전통 한복 공연
- 2018. 7. 아이돌그룹 ‘헤일로’공연
- 2019. 6. 한식 요리 강좌 개최(Meet Korean Cuisine In Israel, 이강원, 백승준, Jerome Kim., 박범수 요리사)
- 2019. 7. 비보이 그룹 ‘애니메이션 크루’공연(이스라엘 비보이 Urban Crew와 협연)

III

통상·투자현황 및 구조

1. 교역현황
2. 투자현황
3. 한-이스라엘 FTA 체결
4. 이스라엘 진출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

1. 교역 현황

가. 교역액

- 양국 외교관계 수립(1962년) 이후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하다 2008년 하반기에 본격화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양국 간 교역액이 급감하였으나 2010년을 지나면서 양국 교역액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였고 꾸준히 20억불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한국에게 있어 이스라엘은 수출규모로 제45위, 수입규모로 제44위의 대상국임.
 - 이스라엘에게 한국은 수출규모로 17위 수입규모로 13위 대상국

〈양국 교역액 추이〉

(단위 : 백만불)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268	-0.5 %	1,448	14.2	1,427	-14.4	1,425	-0.1
수입	1,167	34.9	1,271	8.9	901	-29.1	1,078	19.6
수지	101		177		525		347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나. 교역 구조

- 한국의 대이스라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이며 이스라엘 시장에서 한국산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미국, 일본, EU 등의 동종 제품과 수위 경쟁을 하고 있음.

- 한국 자동차는 2015년 이래 현대·기아차가 이스라엘 신차 시장에서 판매율 1,2위를 차지하는 등 이스라엘 시장에서 많은 인기
-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품은 주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첨단기술 제품으로 완성품이 아닌 부품이며 국내에서 이를 활용하여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재수출하고 있음.
- 즉, 한국의 대이스라엘 주요 수출품이 자동차, 휴대전화 등 완제품인 반면, 이스라엘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 항공기부품 등 완성품 제조에 필요한 부분품이거나 장비류이며 양국 간 무역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평가됨.
- 이스라엘은 시장규모가 작아 제조업 발달이 제한적이나 세계적 수준의 첨단 기술 산업이 발달해 있어 우리의 건실한 제조업 기반이 이스라엘의 첨단기술 기술과 결합할 경우 세계시장 진출 여지가 크다 볼 수 있음.

〈 對이스라엘 주요 수출 품목 〉

(단위: MTI 4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감률
1	자동차	540	726	688	638	-7.3
2	합성수지	97	104	94	95	1.4
3	무선통신기기	62	22	39	51	29.3
4	석유제품	14	20	29	37	24.7
5	기타 정밀화학제품	23	27	17	34	620.5
6	건설광산기계	33	31	30	34	14.5
7	자동차 부품	38	35	38	32	-15.7
8	냉난방기	24	16	26	26	0.7
9	반도체제조용장비	20	11	29	25	-14.2
10	냉장고	16	18	21	23	8.7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투자 현황

- 1994~2018년간 우리의 대이스라엘 투자는 총 41건 56백만불 수준이며, 1996~2014년간 이스라엘의 대한국 투자는 총 80건 82백만불 수준임.
- 투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이 뒤를 잇고 있음.

〈주요 투자 사례〉

한국기업명	투자시기	투자금액 (천달러)	세부내용
삼성전자	2017	n.a.	이스라엘 업체 유니스펙트럴, 아르거스 사이버 시큐리티 등 법인 지분 확대
삼성전자	2017	60,000	이스라엘 반도체 스타트업 발레손에 공동투자
삼성전자	2013	30,000	이스라엘의 동영상 스트리밍 스타트업 '박시'인수
삼성전자	2007	70,000	이스라엘 CIS 전문 기술개발업체 Transchip 인수
에비엔 코리아	2003	481	Leader Holdings & Investments Ltd(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지분 인수
코리아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스	2002	200	코리아 인테그레이티드 서비스가 GENOA Color Technolgies를 설립하면서 20만달러 투자

3. 한-이스라엘 FTA 체결

- 양국 정부는 2019년 8월 21일 FTA 협상 타결을 정식으로 선언함. 2016.5월 예루살렘에서 한-이스라엘 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7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2021년 5월 13일 서울에서 한-이 FTA 서명식이 개최되었고, 2021년 9월 현재 양국은 의회 비준동의 및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임.

- 첨단기술, 창업, 농식품 등 주요 분야별 협력중심의 상생형 FTA 모델로 기능하며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활용한 양국 간 교역확대 예상
 - 한-이 FTA는 이스라엘이 아시아와 최초로 맺은 FTA이며 이번 FTA 체결로 시장 선점 효과 기대
 - FTA 체결로 이스라엘의 강점인 SW 개발 및 IT 서비스, 스타트업 등 첨단 기술 산업과 우리 제조역량의 결합이 용이해져 시너지 창출과 같은 양국 간 협력 증대 기대
- 우리 측은 주 교역품인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관세 폐지로 가격 인하 및 판매증가를 통한 양국 간 교역 확대 전망이 되며, 이스라엘측은 대한국 주 교역품인 항공기 부품, 반도체, 의료기기 등의 가격 인하 등 예상
 - 특히, 이스라엘은 첨단 기술기반 산업이 기존의 전통제조업을 대체하고 있어, 소비자재 및 공산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FTA에 따른 관세 폐지 시 우리의 수출 확대 기대 가능
 - 현행 이스라엘 승용차 관세 7%, 백색가전의 경우 12%가 폐지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4. 이스라엘 진출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

업체명	개소 연도	비고
삼성전자 영업법인	2008년	현지 대리점 지원 및 본사 창구역 수행
LG전자 영업법인	2007년	현지 대리점 지원 및 본사 창구역 수행
삼성통신연구소(SRIL)	2001년	완제품 솔루션 및 기술 연구개발
삼성반도체연구소(SIRC)	2007년	반도체 연구개발
LG 기술연구소(LGTI)	1999년	첨단기술 소싱 및 교류
대한항공	2006년	항공기 운항
현대자동차(현대 크래들)	2018년	현대 Innovation Center
포스코대우	1999년	발전플랜트, 철강/화학 등 프로젝트
텔아비브 무역관 (KOTRA)	1995년	국내기업 이스라엘 시장진출 지원
Global Tech	2008년	산업부 산하 Global Tech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KORIL-RDF) 창구역할 및 기술 협력지원

※ 현대·기아차의 경우 현지법인 또는 지사가 없으며, 대리점만 운용

IV

조약 체결 현황

○ 과학기술협력협정	1994.11.서명	1995.9.22.발효
○ 항공협정	1994.12.서명	1997.7.22.발효
○ 문화협력협정	1994.12.서명	1995.7.18.발효
○ 사증면제각서	1995. 2.서명	1995.5.24.발효
○ 세관협력협정	1996. 9.서명	1997.4.16.발효
○ 이중과세방지협정	1997. 3.서명	1997.12.13.발효
○ 농업협력 양해각서	1997. 8.서명	1997.12.21.발효
○ 전기통신 및 우편협력 양해각서	1997. 8.서명	1998.1.19.발효
○ 민간산업기술협력협정	1998.11.서명	1999.12.17.발효
○ 투자보장협정	1999. 2.서명	2003.6.19.발효
○ 경제협력협정	2000. 9.서명	2001.8.1.발효
○ 해운협정	2004.8.31.서명	2005.2.27.발효
○ 관광협정	2005.11.서명	2006.7.13.발효
○ 민간산업기술협력협정 개정	2012.12.서명	2013. 8.7.발효
○ 취업관광 프로그램 협정	2013.11.13.서명	2016.02.29.발효
○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정	2014.12.22.서명	2016.02.19.발효



영사·재외국민·동포 관계

1. 동포사회 현황
2. 영사관련 업무

1. 동포사회현황

가. 재외국민 현황

- 약 500명(2021년 3월 기준)의 재외국민이 이스라엘에 체류 중임.
 - 이들 중 상당수는 히브리 대학, 텔아비브 대학, 바르일란 대학, University of Holy Land 등에서 수학하는 유학생과 가족들임.
-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절반 이상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텔아비브에는 대사관, 지상사 가족 등 약 200 여명이 거주

나. 한인단체와 교회·성당

- 재이스라엘 한인회
 - 1985년 설립
 - 현 회장 : 이철규
- 재이스라엘 한글학교
 - 1987.7 설립
 - 현 교장 : 김명애
 - 학교위치 : 예루살렘
 - 학과시간 : 주1회 금요일 오후 2:15-4:40

- 재이스라엘 한국문화원(민간 설립)
 - 2006년 설립
 - 원장 : 조형호 목사
 - 위치 : Ben Yehuda St., Jerusalem
- 이스라엘 한인교회
 - 1979년 설립 · 담임목사 : 윤덕재
- 예루살렘 교회
 - 1996년 설립 · 담임목사 : 채완병
- 예루살렘 중앙교회
 - 2000년 설립 · 담임목사 : 서영주
- 텔아비브 옴바교회
 - 2007년 설립 · 담임목사 : 이익환
- 유대교회
 - 2008년 설립 · 담임목사 : 이강근
- 예루살렘 학회
 - 1992년 설립

다. 평통자문위원

- 임기 : 2021년 9월 - 2022년 8월(제21기)
- 자문위원 : 양달선, 이숙영, 이미숙, 황유리

2. 영사관련 업무

가. 우리 국민의 보호 및 체류 편의 증진

- 이스라엘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이 변경 시 대사관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상기 내용을 공지하여 신변 안전과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함
- 코로나19 예방백신접종, PCR 검사 관련 의료기관, 이동식 검사소에 대해 문의하는 재외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이스라엘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 중 현지 의료보험 미가입자들 대상으로 이스라엘 지자체(예: 텔아비브 시청)와 민방위부서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백신 접종 및 PCR 검사 장소*들을 안내
 - * 임시 백신 접종, 검사 장소는 수시로 운영시간, 위치 및 서비스 운영여부가 변동됨
- 코로나19 발생이후 비필수 목적 및 백신 미접종자의 이스라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의 입국정책 관련하여 우리국민들의 이스라엘 입국 관련 문의 시 공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기 내용을 안내하여 입국관련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함
- 2021년 5월 발생한 이스라엘-가자지구 충돌 등, 무력 충돌과 소요의 위험성이 있는 이스라엘 정치·안보 상황을 감안, 이스라엘 경찰, 국경, 공항 관계자 등과 접촉하여 필요시 우리국민을 조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함.
 - 위기상황 발생 시 대사관 및 한인회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재외국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공지하며, 비상연락망을 통해 국민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전개함

- 사증발급은 체류하는 국가의 전권사항이나 이스라엘 내 체류 우리 국민들은 이스라엘 비자발급 및 갱신 등과 관련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을 감안, 이러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당국에 전달하고 허용되는 범위에서 선처해주도록 요청하는 등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 중임.
 -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등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나 이스라엘 당국이 발급하는 비자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매년 갱신해야 하며 비자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스라엘은 유대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체류요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5년 이상 체류 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
 - 출입국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은 테러 방지 등을 위해 입국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실시하여, 우리 국민들이 입국을 불허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
- 예루살렘 순회영사 업무 : 당지 거주 우리국민들 상당수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어, 대사관에서는 격월 예루살렘으로 출장하여 한인이 운영하는 한국 문화원에서 여권신청접수, 공증서류 발급 업무 등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나. 양국 국민 방문자 현황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이스라엘 통계청)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Korean to Israel	22,700명	22,600명	28,300명	45,100명	60,400명	17,100명
Israeli to Korea	12,700명	13,322명	13,507명	15,328명	17,102명	1,445명

※ 한국인 방문자 대다수는 성지순례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음.

VI

북한과의 관계

1. 북한과의 관계
2. 주재국 정보기관 관련 참고사항

1. 북한과의 관계

- 이스라엘은 북한과 未수교 상태로서 공식관계는 전무하며, 북한이 자국의 적대국인 이란·시리아 등에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 북한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등을 강력 비난하면서 靚아랍 일변도 대외 정책을 추진
- 이스라엘은 북한의 핵·미사일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1992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북한과 비밀접촉을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1993년 8월 미국의 자제 압력 등으로 중단한바 있음.
 - 1991년 10월 북한선박이 對시리아 판매용 미사일을 운반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이스라엘측은 동 북한 선박을 위협, 회항 조치
 - 이란핵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란과 북한 간 핵 및 미사일 커넥션을 주목중이며, 북한의 이란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 방안도 모색 중
 - 또한, 최근 시리아 내전, 이슬람국가 발호 및 가자지구 군사작전(Protective Edge)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계 무기가 하마스나 IS, 시리아 반군 등에 이전되었을 가능성에도 촉각
 -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의 對이란·시리아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협력 관계가 지속되는지 여부는 미확인
-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향배가 대이란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최근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진전에 따른 기존 북한의 대외 강경노선에 변화 추세에 주목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대북 외교정책 기조가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직후 이스라엘 정부는 총리실 명의 환영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이 자국 안보에 미칠 여파에 대한

고려로 북미 정상간 공동합의문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중한 입장 견지

2. 주재국 정보기관 관련 참고사항

- 이스라엘 주요 정보기관은 해외정보 담당의 비밀정보부(ISIS, 모사드), 국내 정보 담당 보안정보부(ISA, 샤바크 또는 신베트) 및 軍정보국(IDI, 아만) 등 3개로, 상호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
 - 긴밀한 정보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대표단을 공동으로 편성, 회의 참석·해외 방문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시너지 효과 창출

가. 해외정보기관 : ISIS(일명 모사드)

- 개관
 - 공식명칭 : 비밀정보부(Israel Secret Intelligence Service, ISIS)
 - * 일명 모사드(Mossad)는 히브리語로 Institute(기관)이라는 의미
 - 모토 :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舊約 잠언 11:14)
 - 임무 및 기능
 - 해외 정보수집 및 분석, 해외 공작
 - 각급 정보기관(ISIS·ISA·IDI) 업무 조정
 - * ISA(국내 보안정보부, 일명 신베트 또는 샤바크) 국내 對테러·방첩분야를 담당
 - * IDI(군정보국, 일명 아만)는 군사관련 정보 분야를 담당
 - 해외 이스라엘 시설 및 인원에 대한 對테러 활동

○ 연혁

- 2차 세계대전중 유럽지역 유대인 구출을 위한 조직 결성
- 48.6 建國 이후 외교부가 상기 조직을 흡수, 정보활동 담당
- 49.12 ISIS 창설(51.3 총리 직속으로 독립)
 - * 법률적인 존립 근거가 없는 조직으로 대외활동시 총리실 명의로 활동하며, 총리 승인으로 모든 합법·비합법 활동을 전개

○ 조직

- 부 장 : 「다비드 바르네아」(David Barnea, 2021년 6월 1일 취임)
- 2개 차장 직제(정보·공작次長 및 운영次長)
- 인 원 : 6,000여명(추정, 대외 비공개)

나. 국내정보기관 : Israel Security Agency (ISA, 일명 신베트)

- 1948년 총리 직속으로 ISIS와 함께 설립된 국내 부문 최고의 보안·방첩·對테러 정보수집 및 활동 담당 정보기관
- 현재 부장은 「나다브 아르가만(Nadav Argaman)」이며, 인원 5,000여명으로 추산
 - * 현 아르가만 부장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재임 예정이고 지난 9월 1일 신임 부장(소위'R') 지명

다. 군정보국 : Israel Defense Intelligence (IDI, 일명 아만)

- 이스라엘군(IDF) 산하 조직으로서 군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영상·감청·공작 등을 통해 수집



The State of Israel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80-14